





## 신앙은 미국의 번영과 개인 행복에 절대적!

〈1면에서 계속〉  
그 실수가 무엇이었든 하나님께서 그 악영향을 극소화 하시고 내 나라는 이를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합니다. 나라를 위해 살아온 45년 동안 나의 무능함으로 생겨난 흠집들은 망각 속으로 사라지길 바랍니다. 나도 그 곳에서 쉴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삶과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대통령으로서나 개인으로서도 일치했다. 따라서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 정치사에 있어, 국가 최고 수반의 종교적 위임과 성격, 종교와 시민 도덕성, 국가와 종교의 분리, 선택된

나라로서의 미국, 종교적 자유의 중요성과 본질, 시민 종교의 역할 등이라는 종교적 주제들을 공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인물로 남는다. 바로 워싱턴 대통령이 신앙의 사람이었고, 신앙대로 국정을 운영했기에 그의 후계자들 역시 국정 운영 전반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을 분명하게 인식했고, 각료나 선출직 공무원 인선이나 공공 정책 입안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영향아래 있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종교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점점 더 다원화되면, 워싱턴의 신념 즉 ‘종교는 도덕이나 미국의 근간이 돼야 한다’는 원칙은 광장한 도전들

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도전받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 대통령이 건국 초기에 그러한 신념으로 미국을 인도하게 된 동기와 배경들을 신중하게 연구하면, 미국의 공공 정책 입안이나 시행에서 종교 즉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결론으로, 나폴레옹은 “내 이름이 혁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져 갈 때 사람들은 워싱턴을 위대한 제국의 시조(始祖)라 칭할 것이다”라고 했다. 끝임 없이 힘과 영광을 추구했던 나폴레옹은 유배지에서 초라하고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워싱턴은 최고의 미국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하나님을 인정했기에 권력의 무상함과 겸손을 알았기 때문이다!

## 지구촌 최대 밋상으로 부상하는 트럼프



〈1면에서 계속〉  
중동에 폭탄을 때려 붓고 석유를 가져올 거라는 다짐, 고문을 부활시키겠다는 포부를 거침없이 밝히는 사람이 바로 트

럼프이다. 즉, 2001년부터 2008년 사이에 세계인의 미움을 받은 바로 그 미국의 모습을 캐리커처처럼 담고 있는 인간인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의 해외 인기도도 잠깐 살펴보자.

퓨 센터의 조사에서는 흥미로운 세대 차이가 드러났다.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나이든 세대가 클린턴의 외교 정책에 신뢰를 보인 반면, 젊은 세대가 보인 신뢰도는 훨씬 낮았다. 외교관으로서 쌓아온 명성도 명성이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 유명한 만큼 나이든 세대에서 지명도가 더 높은 덕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각국에서 클린턴과 푸틴에 대한 지지도가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푸틴에 대한 신뢰도가 30%인 나라에서 클린턴에 대한 신뢰도는 70%, 반대로 푸틴을 좋아하는 나라에서는 클린턴을 싫어하는 식이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기후변화에서 동성애자 권리에 이르기까지 클린턴은 가히 안티-푸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하나님 속도’에 맞춰 살자!

〈2면에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한에서, 우리는 느긋한 태도가 필요하다. 느긋함은 게으름이 아니다. 솔로몬은 개미를 보며 풍족한 노동의 교훈을 배우라고 권면한다(잠6:6-11). 개미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느긋하게 해칠 뿐이다. 이처럼 경건한 느긋함과 불경건한 게으름은 전혀 다르다. 게으름은 생기를 주지도, 선하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예수는 게으르지 않으셨다. 부지런히 일하셨고, 단호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당시 자신과 제자들이 휴식이 필요한 것도 알고 계셨고, 여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지 않으셨다. 우리는 경건한 느긋함과 불경건한 게으름을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권태, 현실도피에 빠지는 것은 분명한 게으름이다. 어딘가에 있을 더 나은 인생을 상상하면서 자기 인생을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현재’에 살기보다 ‘만일’이라는 환상에서 사는 것이다. 영적인 훈련은 지루한 시간낭비가 되고, 영적인 안목은 흐려진다. 유혹하는

자는 “일은 많이 하지 않았어? 그러다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네가 좋아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해 봐.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확인해봐? 누가 네 블로그에 방문했는지 확인해봐.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잠깐 머리를 식히는 것이 어때?”라고 충고한다. 그리고 이를 따르다 보면 결국 메마르고 불쾌한 영적 불모지에 떨어지고 만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준 비혜주시 좀 어렵지만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에서 손을 떼게 된다.

또한 과로는 게으름의 다른 이름이다. 더 많은 일을 함으로써 내가 더 가치 있게 된다는 착각을 하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태도는 그 일의 ‘질’보다는 ‘양’에 집중하는 태도로서, 많은 일을 했지만 정작 가치 있는 일은 별로 하지 못하게 된다. 권태에 빠져 웹서핑과 소셜미디어를 뒤지는 행위와 결과적으로는 그다지 다르지 않다.

이런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생활에서도 나타난다. 목사는 교인들을 바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교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반대로 여러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이다. 사랑은 내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 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세상의 오락이 줄 수 없는 희락을 얻고, 안달복달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화평을 누리는 등, 성령의 임재를 추구하며 그 열매를 누릴 때 우리는 게으름이 아닌, 경건한 느긋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예수는 세상의 속도를 따르지 않고 은혜의 속도에 맞춰 사셨다. 예수를 본받아 은혜의 속도로 사는 삶은 영적 리더십의 핵심이다. 속도에 종속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맥동하는 생명과 평화의 속도로 사는 사람이 곧 영적 리더이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자. 내 인생의 속도가 그리스도의 속도와 일치하는지 점검해 봐야한다. 예수는 게으르지 않으셨지만 느긋하게 풍성한 삶을 사셨다!

##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 설교준비(하)

목사는 목회자 우선이다 (중)

열린예배

요즘은 시들해졌지만 한때 열린예배가 유행처럼 번진 일이 있었다. 한국교회의 경우 열린예배는 젊은이들에게 다가서는方便이었고 그들을 예배에 참여시켜야 된다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예배 형식은 호주, 싱가포르,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몇몇 대형교회들을 모방한 것이었다. 기타, 드럼, 건반악기 등이 동원되고, 설교자의 복장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고, 찬양은 전통찬송가나 순수 복음성가의 장르를 넘어 세속음악의 유행을 도입했다. 필자는 예배학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는 다 열려 있다. 다시 말하면, 닫힌 예배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예배에 동참할 수 있고 예배 장소의 문은 언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얼마전 미국에서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펴고 있다는 목사를 만났다. 귀고리를 하고 있었다. 의아스러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젊은이들에게 접근하고 소통을 이루려면 그들의 문화 높이에 자신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음 날 캠퍼스에서 한국인 학생을 만나 선교사 얘기 끝에 귀고리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그 학생의 대답은 “귀고리 했다고 소통이 되나요?”였다.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드럼을 두드린다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예배는 예배다 울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배자들의 문이 열린다. 물론 경직된 예배 형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급변하는 청년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예배인지 합합이나 재즈 연주회장인지 구분이 모호한 그런 형식을 도입해선 안된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 설정이다.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받으시도록 진행되는 행위여야 한다.

그런데 소위 열린예배의 경우는 ‘어떻게 젊은이들의 요구와 기대치를 만족시킬까?’, ‘어떻게 그들을 기쁘게 할까?’, ‘어떤 프로그램과 진행이랴 그들이 열광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잘못이다. 구약의 경우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전이었고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 행위는 모두 ‘거룩함’이었다.

목사는 수시로 예배를 인도한다. 그러나 목사도 예배자여야 한다. 상담도 선교도 교육도 그리고 코이노니아나 섬기고 나누는 것도 예배 다음이다. 그리고 예배 인도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곧 예배 자체는 아니다. 예배 인도는 회중을 예배로 이끄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이기 때문이다.

미국 동부지역 모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다. 5백 여명 모이는 교회니까 꽤 규모가 큰 교회였다.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장로가 매일 밤 안내를 맡고 있었다. 안내 전담 팀장이어서 익숙한 매너로 오는 교인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가 시작된 후에도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않고 안내를 하는가 하면, 예배가 시작되면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다가 예배가 끝나면 나타나곤 하는 것이 아닌가? 안내보다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자는 안내하지 않아도 제자리를 찾아 앉는다. 그러나 구경꾼은 안내자가 없으면 망설이거나 자리를 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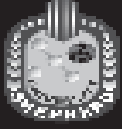
예배란 하나님께 나와 그의 성호를 높이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과 횟수가 많을수록 좋다. 그런데 주일저녁 예배를 폐지하는가 하면 수요일 예배도 가정예배로 대체하는 교회들이 불어나고 있다.

필자의 경우 20여 년 전에 내가 은퇴하는 날까지 저녁예배는 존속한다는 것을 선언했다. 저녁예배 대신 오후 3시경 간이예배로 대체하고 귀가하는 교회들의 경우 저녁예배는 부담스럽고 폐지하는 것은 송구스럽다는 생각 때문에 점심 공동식사 후 소수가 모여 예배를 드린다. 그런 예배에 참석해 보면 좌석은 텅 비어있고 남은 사람들은 식곤증으로 졸고 앉아 있다. 예배가 아니라 방편이고 임기응변이랄 수밖에 없다. 어느 교회는 저녁예배를 폐지하지는 편과 존속하지는 패로 갈려 싸움판을 벌인 끝에 저녁예배를 오후예배로 대체했다고 한다.

필자가 섬긴 총신교회는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저녁, 목요찬양집회, 금요철야, 산상기도회, 매일 새벽기도회 등 모이기를 힘쓰도록 노력했다. 그럴 경우 피로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은 목회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목회자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모이기를 게을리 하면, 교인들은 영적 결핍증을 앓게 되고, 교회는 성장 정체현상을 겪게 된다.

총신교회는 한국교회 최초로 목찬(목요찬양집회)운동을 시작했다. 건전한 찬양운동과 그 저변 확대를 위해 찬양학교를 세우고 교제들을 편찬했다. 찬양전문 사역자인 부목사에게 그 사역을 맡겼다. 그리고 훗날 목요찬양학교는 ‘다리 놓은 사람들’이라는 옥동자를 분만했다. 한국교회가 애창하는 상당수의 복음찬양이 총신교회 사역자들과 젊은이들의 작품이라는 것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iamcspark@hanmail.net



**SHEPHERD**  
UNIVERSITY

Kennedy:

쉐퍼드대학교는 **ATS** 뿐 만아니라 **WASC** 및 **ACICS** 를 통해  
미국 연방정부 고등교육 인증협회(CHEA)에 등록된 학교입니다



군 장학금 무상지원 프로그램



연방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  
TITLE 4 Sub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은 ATS 정회원 학교로

### 유명 신학교들로의 편입, 진학, 학점교류 및 동일한 학위 인정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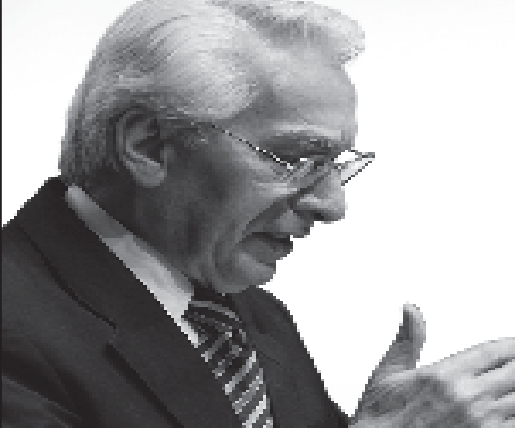
온라인 통신 과정 개설



동시 통역 강의

※ 유학생의 R1, H1B 비자 및 영주권 취득 자격은  
연방정부교육국(CHEA)에서정회원으로 인증된 학교의 학위뿐입니다.

| 과정            | 학점     | 전공                                                                   |
|---------------|--------|----------------------------------------------------------------------|
| 신학학사 (BABS)   | 126 학점 | • 신학학<br>• 기독교 상담학<br>• 기독교 교육학<br>• 기독교 경영학<br>• 스포츠 미니스트리학         |
| 목회학석사 (M.Div) | 96 학점  | • 목회학<br>• 기독교 상담학<br>• 기독교 교육학<br>• 기독교 사회복지학<br>• 선교학<br>• 기독교 경영학 |
| 목회학박사 (D.Min) | 36 학점  | • 목회학<br>• 목회 상담학<br>• 기독교 사회복지학<br>• 기독교 교육학<br>• 선교학               |



**드윈 카를로스 오트모즈 박사**총로학장

**저서**

- 저서: 입교
- 주교: 목회학
- 저서: 해방과



**한스 크레프트 박사**

**저서**

- 저서: 목회학
- 저서: 목회학
- 저서: 목회학

입학문의 | 323.550.8888 Ext.8231 | SEVIS I-20발행

WEBSITE | www.shepherduniversity.edu



목회서신

웃시아 왕이 죽을 때!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이샤야 6장에 보면 웃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샤야가 성전에서 영광스런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웃시아 왕은 이샤야 선지자의 친척이었습니다. 이샤야 선지자는 웃시아 왕의 사랑과 비호를 받으며 궁정선지자로 편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웃시아 왕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과거에 보지 못했던 영광의 하나님을

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때로 내가 의지하던 육신의 배경이 무너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비전(vision)이 보이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에 헨리 듀넌트라는 유명한 은행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전세계를 석권하고 있던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폴레옹

을 만나고자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시대 세계적인 거목을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고 싶다는 야망이었고, 또 하나는 스위스의 은행장으로서 불란서와 더불어 경제협력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드디어 듀넌트는 조국 스위스의 경제사절의 임무를 띠고 파리로 가서 나폴레옹 황제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꿈이 이제 막 실현

될 참나 공교롭게도 그가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 황제가 전쟁터로 출정한 직후에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나폴레옹을 만나고자 하는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나 듀넌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해 전쟁터로 따라 나섰습니다. 마침 프랑스 군이 오스트리아 군대와 더불어 치열한 전투를 하는 상황이 눈앞에 전개되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를 누비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뒹굴고 있는 수많은 시체들을 바라보면서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생명의 허무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전쟁은 끝났어도 그는 거기서 남아 오랜 기간 동안 의사를 도와 부상병을 치료하고 시체를 치우는 작업을 하며 어느 날

기도하는 중 그는 하늘의 꿈을 꾸게 됩니다. 평화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부상당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해야 한다.” 그는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의 꿈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여 스위스 최고의 재벌이 되겠다는 꿈은 사라졌지만 그는 하늘의 꿈, 평화의 꿈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몇몇 친구와 함께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자를 돕기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저 유명한 적십자사입니다. 듀넌트는 첫 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됩니다. 이 적십자기를 자세히 보면 기의 색상과 순서 배치만 다를 뿐 스위스의 국기와 똑같은 것

발입니다. 조국 스위스에 그리고 전 세계에 평화를 심고자 했던 꿈, 하나님 나라가 전쟁터에서도 이루어지는 꿈이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꿈이 깨어졌을 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위대한 꿈을 이루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 우리의 꿈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꿈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꿈, 세상욕망의 꿈이 깨어질 때 우리는 이샤야처럼 헨리 듀넌트처럼 더 높은 하늘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육의 꿈, 땅의 꿈이 깨어질 때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꿈, 영원한 영광의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성취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jscoffice01@gmail.com

푸 / 른 / 초 / 장

최창섭 목사

(뉴욕 에벤에셀선교회)



스로스츠란 죄수는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년간이나 교도소 생활을 하고 가족 채찍으로 50회씩 8번이나 맞았으나 그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이나 교도소에서는 그를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몰랐다. 그가 출옥 후 구세군 보호소에서 잠시 지내는 동안 성경을 읽다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후에 그는 구세군 출옥자 보호소에서 18년간 봉사하며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았는데, 이런 간증을 했다. “가족 채찍과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도 변화되지 않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짧은 기간에 변화된 인생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성경의 다스림을 받으면 몇 가지 변화가 꼭 따라오게 된다. 신분의 변화로 죄인이 의인되고, 사단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며,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된다(요1:12, 벰전2:9). 생각과 언어가 현저하게 변화되며, 전에는 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의 소유자가 바뀌어 긍정적이고 소망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언어의 소유자로 바뀌게 된다. 또한,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져 빛과 소금의 삶, 덕이 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며, 자기중심적 사람이 주님중심적인 자로 바뀌며, 자기 고집과 주장, 자기만을 나타내는 삶에서 자기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만 나타내는 삶

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있게 된다. 이런 변화를 가능케 하는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조화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놀랍게 역사해주신다. 말씀은 바른 진리로 무장하게 만들고, 기도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든다. 만약,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등 종교지도자들처럼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기 쉽다. 그러나 기도는 있는데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무지하여 신비주의적 신앙으로 기울게 되고, 나아가 잘못된 이단에 빠져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든다. 우리의 신앙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능력으로 무장할 때 마귀의 권세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유혹과 여러 시험에서도 승리하게 된다. 마16장을 통해,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고백(마16:16), 수난예고(16:21), 그리고 다가를 심판(16:28)에 말씀하신 후 엿새 후에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것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셔서 세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것은 인류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문제였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며 성경을 넣어주었다. 성경을 읽는 중에 그의 강력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예수를 영접하였다. 그 후 죄수들의 빨래를 담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고, 후에는 출옥하여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 평생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다. 둘째, 우리 마음에 변민하고 걱정하던 고통스런 문제가 기도하는 순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항상 그늘지고 수심이 가득했던 얼굴에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납던 얼굴이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상스럽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이었으나 기도하니 부드럽고 위로하는 언어, 격려, 축복하는 언어로 바뀔 것이다. 가정, 직장

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이었다. 주님의 죽으심은,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하여 주님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셨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 했나? 나와 당신의 죄 때문이다. 나와 당신의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다. 주님의 관심은 바로 영혼구원이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라. 그리하면 그 순간 죄 사함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히 멸망하게 될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아 이

라” 하셨는데, 후에 주님께서 와서 보시니 세 제자는 다 졸며 잠을 자고 있었다. 한 명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어 기도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결 론(마17:5, 8)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 엉뚱한 말을 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있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마17:5) 즉 주님께서 메시야이심을 하나님께서 확인해주셨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을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얼마나 감격적인가? 제자들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눈을 뜨고 보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마17:8).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 나타나야 한다. 예수님은 죄악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참 길과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신 분이시다. 다른 이를 통해서 구원받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요14:6, 행4:12).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 즉 왕 중의 왕이시며, 선지자 중의 선지자이시며, 제사장 중의 제사장이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했어도 예수님만 증거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한다. 내가 나타나면 안된다.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넘치는 수고를 했어도, 공로가 있어도 예수님만 남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변화된 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맡기시고 이루어 가신다. 이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복음의 전령자들이 다 되시길 축원한다. 아멘. josephchoi0408@Yahoo.com

변화

마태복음 17장 1-8절

1. 변화된 주님의 모습(마17:2, 눅9:28)

기도하신 주님의 얼굴은 변화되시어 해 같이 빛나셨고, 옷도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변화하신 모습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가지시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표로 보이신 것이며, 또한, 장차, 우리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 들어가게 됨을,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때의 모습이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어떻게 변화되겠는가? 첫째, 강력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 Charles Colson(닉슨 보좌관)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그의 3명의 상원의원 친구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며 감옥에 찾아가서 위로하

에서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셋째, 기도하면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행16:25-34). 기도하면 전인적 변화가 있게 되어,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란 것을 보여 주게 될 것이다. 또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바뀔 것이다. 2.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신 예수님(마17:3)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예언자를 대표하는 자이다. 율법은 제사 제도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였고, 선지자들은 메시아 수난의 희생을 통한 구원을 예언하였다(사53장, 눅9:9) 즉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예언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겠나?(눅9:30-31). 그 내용은, 주님께

땅에 사는 동안은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셨고, 장차 죽어서는 천국에서 영생을 얻어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본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마17:4). 베드로는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황홀하여 정신이 나간 말을 하고 있다. 그가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버금가는 인물로 생각하여 초막 셋을 짓고 거기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살고 싶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그런 엉뚱한 말을 하게 되었을까? 그는 졸다가 보았다.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눅9:32)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할 때 잠을 자면 헛소리 하게 된다.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기 전에 특별히 세 제자를 불러 부탁하셨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강사: 라홍재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교회와 신앙에 대해 연구하는 기  
관들의 기독교 세속화에 대한 공통  
의 염려를 말한다던 종교다원주의  
와 배금주의를 꼽는다. 여기에 필자  
는 신앙의 편리주의가 엄청난 사단  
의 공격루트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  
고 싶다. 어쩌면, 신앙의 편리주의는  
가장 드러나지 않게, 마치 조지 바나  
(J. Barna)가 말하는 “주전자 속의  
개구리(The Frog in a kettle)”처럼,  
아무런 영적 감각과 의식 없이 살아  
가는 삶속에서 한순간 세속화에 잘  
반응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다.

편리함이 발전인가?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는 것을 받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가 많을  
을 본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나가 드  
려지는 것인데.... 사랑은 시간 때우  
기가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지는 예배가운데 은  
혜가 있는데...., 주일은 주님을 온전  
히 예배하도록 정하신 날과 시간인  
데...등등' 다른 약속과 목적을 취하  
는 데 있어서 편리를 도모하도록 이  
용되는 예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 사랑이라는 기본을 빼놓고  
드리는 예배에 은혜가 없으니까, 반  
대로 은혜 받지 못하는 자신을 타당  
화 시키기 위해 교회의 다른 문제를  
핑계하거나, 과거에 나도 은혜를 입  
을 때가 있었다며 추억의 신앙으로

라는 것은 결코 성령의 음성이 아니  
다.

마귀의 지혜-멀리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부  
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  
시 저들을 회복시키고자, 모세를 보  
내어 바로왕을 만나게 하셨다. 하나  
님 섬기고 살겠다. 예배드리러 가겠  
다. 저들을 보내달라고 하자 바로의  
첫 대답은,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  
가 있느냐? 너무 멀리가지 마라(출  
8:28). 광야에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서 예배를 드려라.'고 말한다. 바로  
왕의 대답은 마귀의 지혜이다. 거기  
광야로 가지 말고 그냥 있는 자리에  
서 망기적 망기적 거리면서, 여기 침

라는 것이다. 교회에 은혜가 떨어지  
면 재정문제가 시련거리가 되듯이,  
남자가 신앙 떨어지면 돈부터 말해  
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게 한다.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게 하는 것이  
다. 은혜는 받았는데, 드릴 것이 없  
으면 마음이 냉랭하게 차가워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공수로 나아가  
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물  
이 없으면 제사가 되지 않음을 기억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단은 십일조  
의 말씀을 교회에서 돈 이야기 하지  
마라고, 왜 부담주느냐고 반박하는  
지혜를 가지고 신자를 유혹한다.  
바로왕의 소리는 사단마귀의 소  
리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유월절 제앙을 통해서도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간사 제자교회)



## 편리주의에 물든 세속화된 신앙

- 편하고 편리한 것만이 진보와 발전은 아니다 -

전이라고 한다. 예전의 크고 무거운  
컴퓨터를 들고서, 부팅을 하고 한참  
을 기다리면서 사용하던 컴퓨터가  
이제는 한 손바닥 안에 들어와서 손  
가락 하나로 세상을 클릭하는 시대  
를 살게 된 것이다. 이것을 사용하는  
필자도 가끔은 이토록 편리한 전화  
기가 나를 삼켜버리는 조지 바나의  
개구리를 삼키는 주전자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본다. 심방, 광고, 공  
문, 심지어 노회의 회의까지도 예전  
의 스카이프 세대를 넘어서서 카톡  
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게 되니, 피  
할 수는 없지만 가끔은 베이직 폰으  
로 돌아갈까 생각해보면서도 이 편  
리한 문명의 도루를 포기하지 못함  
을 본다.

과연 편리해지는 것만이 진보와  
발전인가?를 생각해본다. 인간으로  
서 삶의 편리함을 거부할 필요는 없  
겠지만, 이것이 영적인 부분까지 침  
투해서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든  
는 편리주의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  
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삶의 편리  
주의가 침투하는 세속화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의 온전함을  
지킬 때에 삶의 유익함도 의미가 있  
기 때문이다.

신앙의 편리주의 현상  
몇 가지 현상들을 살펴보면, 이미  
일주일예 한반만 교회가면 되지 않  
느냐, 꼭 교회에 가야만 예배가 되느  
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  
가? 라는 편리주의가 일반화되어 가  
는 것을 본다. 그 한 가지 예로, 1부  
예배가 드러지게 된 것은 교사 등  
봉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부  
분에서 예배를 빨리 드리고 또 다른

전향하는 것을 보게 된다.  
  
몸을 드러지 않는 신앙  
몸이 교회로 오지 않는 편리한 예  
배를 드러냈다고 말한다. 몸을 산 제  
물로 주님 앞에 가져오지 못하는 예  
배를 드러냈다고 하는 것이다. 말세  
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  
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합쓰  
라고 하였는데, 몸을 움직여 모이지  
를 않고 귀신도 아닌데 몸 없는 예  
배, 그런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다.  
꼭 내가 몸을 움직여 교회에 갈 필  
요가 있겠느냐? 그냥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말씀 듣고, 필요하면 헌  
금은 체크로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는 것이다. 나중에는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의 일들도, 로봇이나 돈으로 고  
용된 일꾼에 의해 감당케 할지 모를  
일이다.

편리주의는 세속화로 거결  
아마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예배  
하는 처소도 필요없다는 예배당무  
용론에 도달할 것이다. 극단의 예일  
지 모르지만, 너무나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 예배당에서 유행가 가수의  
쇼가 펼쳐지든지, 술과 재떨이를 두  
고 예배하는 교회도 생기지 않겠는  
가? 아니면, 아예 술집에서 예배드  
리는 일을 시작할지도 모르겠다. 정  
말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주님이 오  
셔야 할 것 같은데, 들려지는 말로는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는 이미 초신  
자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교회  
당 한쪽에 재떨이를 두었다고 하니,  
구별됨의 장소로서의 교회는 이미  
무너져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교회가지마라, 예배드리러 가지  
마라, 편하게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

대위에서 속옷차림으로 인터넷 커  
두고 내 마음의 사정에 따라 은혜  
되는 목사님을 선택해서 아주 편안  
한 자세로 바로 여기서 설교 듣고  
예배드리라는 것이다. 전화기에서  
온갖 말씀 다 나오는데, 불편하게 개  
스비 들어서 구태여 갈 필요가 있느  
냐는 것이다. 꼭 그렇게 멀리까지 네  
가 섬기는 교회 갈 필요가 있냐? 마  
귀의 소리이다.

신앙을 강요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세에게 바  
로는 다시 타협안을 제시한다. 광야  
에서 예배를 드리는는 드러라, 그런  
데 가족 모두 가지는 말고 남정네들  
만(출10:11) 가라는 것이다. 남자만  
가라는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집  
안의 대표자만 가면 되지 않느냐, 신  
앙은 개인적인 것인데, 너만 잘 믿으  
면 돼지 왜 믿음을 가족들에게까지  
강요하느냐는 것이다. 꼭 가족이 같  
은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때  
가 되면 다 믿겠지, 너무 어렵게 말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단의 교묘한  
타협의 소리이다. 내가 가진 그리스  
도의 신앙이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가  
족에게 강요이상의 강요를 넘어서  
는 강권함으로 저들과 함께 주님나  
라가기위해 몸부림하는 것이 지극  
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제물 없이 예배드리라  
거듭된 제앙의 고통 가운데, 마지  
막으로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너희  
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찌니라'고 말한다. 예  
배에 드릴 제물은 두고 빈손으로 가

만드시 그 백성들을 자신이 원하시  
는 구별된 자리로 이끌어 내시는 분  
이라는 사실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많이 불편해도 부담이 되어도 구별  
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말씀 그대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서 하나님을 신앙해야 한다.

신앙은 편한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 예배는 편한 것이 아니  
다. 예배는 시작부터 마치고까지, 그  
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를 붙잡  
고 회개하며 마음이 축축해서 드러  
지는 시간이다. 예배는 편하게 하는  
게 아니다. 죄성을 거스르며 성령과  
말씀이 내 영혼을 조명하며 철저히  
말씀에 조종 맞추어 겔36:22-25의  
말씀처럼, 영혼의 불순물이 씻겨나  
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영혼이 수습받는 구별된  
시간이다. 불편할지라도 남녀노소  
를 불문하고 예배의 구별이 온전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연히 구별된  
복장도 필요하다. 댄스홀에 왔는지  
예배당에 왔는지 구별되지 않거나,  
극장에서 영화보는 것인지 어떤 지  
모를 자세로는 도저히 구별된 예배  
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신앙의 소비자중심주의를 거부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 교회의  
존재목적의 가장 첫 번째가 예배이  
다.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가 있는 곳  
에 교회가 있다고 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다.  
좋은 교회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이  
고 좋은 그리스도인은 예배 잘 드리  
는 성도이다. <11면으로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기  
전의 롯바다와 요한 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  
진 수정 같이 맑은 유리바다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요?  
- 팔로스 버디스 김형남

**A:** 과거 구약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그전에  
먼저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씻지 않고 들어  
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격률하심을 받아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  
씀하셨습니다. 이 물두멍은 여인들의 뉘실 거울로, 당시에는 유리가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화장을 하고 나서 뉘그릇을 깨끗  
이 닦아서 물에 담아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물두멍은 여인  
들의 이 뉘실거울로 만든 것으로서 제사장이 손을 씻는 곳이기도 한  
데 짐승을 제단에서 죽인 후에 손에 묻은 피를 성소에 들어가기 전  
에 물두멍에서 씻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나오는 물두멍은 뉘으로 만들었기에 이름을 뉘 바  
다라 불리웠습니다. 이 물두멍이나 뉘 바다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  
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 용서함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씻음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  
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공로  
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음을 보  
여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씻음 받은 자만이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어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보  
좌 앞에 나아가려면 이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유리 바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려면 수정 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그곳을 그냥 통과 못합니다. 너무 맑아서 자기들의 모든  
죄가 유리바다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리  
바다를 통과하려면 자기들의 죄를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 선결케 된  
사람만이 이 유리바다를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  
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천국의 144,000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피로 씻김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계  
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19-22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  
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께 나아가자”(히10:19-22).

그러므로 우리가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아 의롭게 된 것이 얼마  
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다른 무엇과는 비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축복이라는 말을 blessing이라고 말  
하는데 이것은 bleed(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흘림의 은총을 입은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 피  
흘림의 속죄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조금 같은 유리 바  
다를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자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철수과목) & D.Min. Students(철수과목)  
Dr. Thomas Sta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jik Lee

On Campus Courses

2016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19-23(9월 19 - 23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s(세계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Sept 26-30(9월 26 - 30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역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철수과목) & D.Min. Students(철수과목)  
Dr. Thomas Stalter

Oct 3-7 (10월 3-7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철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ter & Dr. Stephen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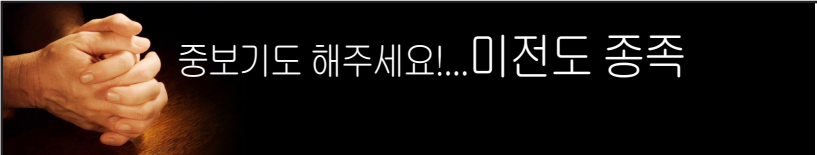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8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sc@grace.edu, gskoreanstudies@gmail.com



## 카자흐스탄의 둔간(DUNGAN)



둔 간 족은 원래 중국 북서쪽의 칸수성과 쉰시성에 살던 민족이었다. 오늘날 칸수성에서 온 사람들은 키르키즈스탄의 산간지역과 계곡지대에 거주하고, 쉰시성에서 온 사람들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다. 둔간족은 둔간족의 이슬람교도 반란(1862-1877) 때 청나라 황제에게 패한 후 가난한 농부가 돼 중앙아시아로 이주해왔다.

문화적으로 중국계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랍, 페르시아, 그리고 투르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일반적으로 많은 둔간인들은 그들 자신의 언어와 함께 카자흐어를 사용하며, 젊은이들은 러시아어도 할 줄 안다. 그들의 언어인 둔간어는 만다린 중국어(Mandarin Chinese)의 일종이지만 키릴문자를 쓰며 4성을 사용하는 중국어와는 달리 3성을 사용한 다.

둔간인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호의적이며, 민족성이 강한 보수적 민족이다. 이미 중국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후이-쭈(Hui-Zu)', 즉 중국계 무슬림이라고 지칭한다. 하

지만, 러시아인들은 그들을 '둔간'이라는 호칭으로 부른다.

**삶의 모습**  
둔간인들은 주로 쌀농사를 짓거나 사탕무우 같은 야채를 재배하는 농부들이며, 많은 사람들이 젓소를 함께 기른다. 게다가 일부는 야편을 재배하기도 한다. 농부들은 자신의 지도자, 의사, 교사들과 함께 '콜호즈(kolkhoz)'라는 집단 농장에서 거주한다. 극히 일부인긴 하지만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작가, 언어학자, 역사학자, 시인, 신문사 편집자 일을 한다.

둔간인들은 부유하므로 풍부한 육류와 야채를 즐기며, 자기들의 농장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하다. 마늘과 식초로 맛깔나게 양념한 동양식 면류와 양고기, 닭고기, 볶은 야채를 즐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젓가락을 사용해서 식사한다.

둔간인들의 거주지는 대부분 강유역에 집중돼 있는데, 보통 하나

의 마을에 두어 개의 집단농장이 있고 수 천명의 인구가 있다. 각 마을에는 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자체 운영조직이 있다. 농장은 취사를 위한 연료나, 수도, 전기를 자급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작은 도시다. 이러한 농장 외부에 사는 사람들은 충분한 크기의 가옥에서 대가족을 이루어 산다.

각 집단농장의 마을에는 한두 개의 학교가 있으며 모든 수업은 러시아어로 진행되지만, 주당 2시간 정도는 둔간어로도 교육받을 수 있다. 각 농장에는 유아 놀이방, 잡화점, 병원, 우체국이 있으며, 어떤 곳에는 담배공장, 야간학교, 낙농장, 목욕탕, 기계 수리점 등도 있다.

둔간인들은 동족결혼을 선호한다. 즉 특정 집단 안에서만 결혼을 하려 한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둔간인들은 키르키즈스탄에 거주하는 둔간인들보다 더욱 보수적이어서 둔간 여자가 타지로 시집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둔간인들은 가능하면 많은 자녀를 낳

아 평균 8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다.

둔간인들은 후한 환대로 유명하며 그들의 고유문화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의식과 연회를 치른다. 그들은 생일,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정성을 많이 들인 화려한 의식을 거행한다. 또한 각 학교에는 박물관을 만들어 자수품, 전통 의상, 은세공 장식품, 동식물을 본뜬 종이문양, 그리고 전통 연장 등 고유문화를 보존하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카자흐스탄은 문화와 종교가 다양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민족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종교에 대한 공산주의의 압박이 보다 많은 관용으로 전환했지만 둔간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으며,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무슬림이다. 카자흐스탄의 둔간족 가운데 현재 알려진 기독교인은 없으며 그들을 목표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도 현재는 없다.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있기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일순이 필요하고 또 그들 가운데 가정교회가 시작돼야 한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켄터키 주 '노아의 방주' 공원 개장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실물로 재현한 테마공원이 7일 미국 켄터키 주에서 개장한다.



'노아의 방주' 테마공원은 하느님이 타락한 인류를 물로 심판하면서 의로운 노아에게 가족과 암수 한 쌍의 모든 생물을 싣고 홍수를 피하도록 했다는 성경 이야기에 기반해 방주를 원형 그대로 재건한 시설이다.

지난 2010년부터 총 1억 달러가 투입돼 6년 만에 성경에 기록된 치수 그대로 길이 155m, 높이 16m의 방주가 완성됐다. 방주 안에는 성서의 설명대로 노아의 가족과 동물, 우리가 모형으로 재현했다.

사업을 이끈 '앤서스 인 제네시스'의 켄 햄 회장은 "이번 세기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업이 될 것"이라며 개장 첫해 200만 명이 공원에 다녀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아의 방주' 공원은 설립 계획이 발표된 지난 2010년부터 계속해서 논란에 시달려왔다. 반대론자들은 노아의 방주가 아이들의 과학교육에 해가 된다며 주 예산을 배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독교 관광 상품에 주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정교분리를 명시한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 미 정부, 김정은 인권 제재는 '완결판'

6일 미국 정부가 내놓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와 소니영화사 해킹 공격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제재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개인 15명과 8개 기관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발표하며 이번 제재가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 13722호와 13687호에 의해 이뤄진다고 명시했다.

지난 3월 16일 발동된 미 정부의 행정명령 13722호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재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이 행정명령에서 사상 처음으로 적용됐고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감염,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sectoral ban)도 처음 담겼다.

행정명령 13722호와 더불어 김정은 제재의 근거가 된 행정명령 13687호는 2014년 말 발생한 북한의 소니영화사 해킹공격을 계기로 마련됐다.

구체적인 불법행위와 연관된 개인이나 단체들을 대상으로 삼았던 기존 대북제재와 달리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 그리고 산하 단체·기관들을 포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이 행정명령의 특징이다.

이들 두 독자제재에 앞서 2011년 4월 발효된 행정명령 13570호는 북한의 상품이나 기술, 서비스가 직접 미국으로 수출 또는 이전되려면 명시적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고, 2008년 8월 발효된 13551호는 북한 정찰총국과 북한 노동당 39호실, 청송연합 등에 대한 표적 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이었다.

북한을 겨냥해 만들어진 행정명령 가운데 가장 오래된 2008년 6월의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TWEA)의 적용대상에서 해제하는 것과 동시에 지속되는 북한의 핵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상황'으로 규정했으며 그에 따라 북한 자산의 동결도 유지했다.

북한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명령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5년 6월 대량 살상무기 확산국가 및 조력자들에 대해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13382호가 있다.

2000년 제정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의 경우도 다자 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티베트서 불교인 20만명 '예수님 영접'

해발 약 8,848m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에 위치한 중국 티베트 지역에 최근 불교 승려 62명을 포함해 20만여 명의 티베트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돌아왔다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기독교 NGO' 아시아 액세스(asianaccess.org)가 지난달 17일 밝혔다.



특히 최근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티베트인 중 대부분은 불교 신자이지만 무슬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 액세스 조 핸들리(Joe Handley) 대표는 "작년 한 티베트 라마(불교) 승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목사가 됐다"며 "이후 그는 티베트 지역 대규모 지진이 난 지역의 사람들을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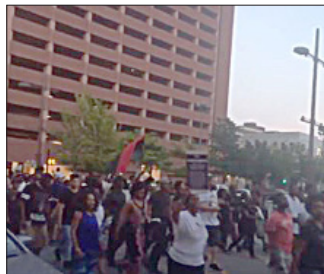
핸들리 대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씨가 성장해 62명의 라마 승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으로 돌아왔다"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작년 한 해만 20만 명 이상의 현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며, 이는 기독교 공동체의 헌신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핸들리 대표는 이 같은 엄청난 회심의 사건의 배경에 대해 "작년 엄청난 지진의 여파로 고통 받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전했다"면서 "재해를 만난 티베트인들은 불교나 힌두, 다른 기타 종교 단체들이 지진의 잔해 속에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이 힘든 시기를 이들과 함께 하며, 자신의 삶을 희생해 봉사하며 예수의 손과 발의 역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 액세스는 교회 지도자들의 훈련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장기적 영적 성장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티베트 승려의 삶을 잘 아는 이들을 목회자로 세우는 것 외에도, 지역 사회에 깊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희생자이자 원인 제공자... 미국의 경찰 딜레마

미국 텍사스주 델러스에서 경찰관 5명이 저격된 지 이틀 만에 휴스턴에서 경찰에게 총을 겨눈 흑인 남성이 사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5일과 6일 백인 경찰의 잇따른 흑인 사살 사건으로 시작된 인종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경찰을 향한 적대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방송국인 KHOU는 9일 휴스턴 경찰 2명이 동남부 켈렌 거리에서 무장한 흑인 남성에게 총을 쏘 숨지게 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텍사스주 서남부 샌안토니오의 경찰청을 향해 총격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휴스턴에서는 오전 12시40분쯤 짙

을 지어 순찰을 하던 경찰관 2명이 총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40대 흑인 남성을 발견해 접근했다. 경찰이 총을 내려놓으라고 지시했으나 남성은 이에 따르는 대신 총을 경찰에게 겨눴다. 일행인 여성 역시 바로 옆에서 총을 내려놓으라고 반복해 말했으나 남성은 듣지 않았다. 결국 지원병력이 도착하기 전 이 남성은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남성을 사살한 경찰은 각각 근무한 지 10년, 13년 차인 강력범죄 부서 소속 베테랑으로 평소처럼 순찰을 하고 있었다. 숨진 남성의 이웃은 KHOU에 남성이 마약과 폭력에 젖어있는 생활을 해왔다고 전했다. 수년 전 조부가 자택 주차장에서 총격사건으로 숨진 뒤부터 이 남성은 복수를 하겠다며 총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턴에서 서쪽으로 약 2시간 거리인 샌안토니오에서는 같은 날 오후 10시쯤 경찰서 본부 건물을 향해 총알 여러 발이 난사됐다. 총알은 대부분 건물 외벽에 박혔으며 사상자는 없었다. 용의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관 5명이 지난 7일 저격으로 사망한 델러스에서는 경찰서에 테러 위협이 남아들었다. 현지 WFAA방송에 따르면 오후 4시 델러스 경찰본부에 "경찰서를 테러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은 즉각 건물을 폐쇄한 뒤 검은 옷차림의 신원미상 남성이 목격된 인근 주차장 건물에 경찰특공대(SWAT)를 보내 수색했으나 용의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미국에서는 루이지애나주와 미네소타주에서 백인 경찰의 총격으로 흑인 2명이 잇달아 사망해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거세졌다. 특히 백인이 인구의 70%가 넘는 인종차별이 심한 것으로 알려진 텍사스주에서는 지난 7일 델러스 시가지에서 진행된 평화 시위 중 경찰 5명이 저격당해 사망하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 오바마, '아프간 철군' 약속 결국 못 지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2001년 10월 7일 전쟁을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목이 잡혀 있다. 학전 반대론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지 8년이지만 임기 내 철군 완료는 물 건너가게 됐다. 미국이 치른 가장 긴 전쟁이지만 앞으로도 수년은 더 피를 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이후에도 아프간 주둔 미군을 8400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2014년 5월 "2016년 말까지 미군 철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 약속은 지난해 10월 "2016년 말까지 병력을 5500명으로 줄이겠다"로 수정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8400명 병력 유지로 바뀌었다. 다만 현재 9800명인 병력이 올 해 말까지 1400명 정도 줄게 됐다.

이는 국방부와 공방당, 보수진영 인사들의 '9800명 병력 유지' 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그들은 아프간 내 테러 확산을 이유로 주둔군 규모 유지를 요구했다. AP통신은 7일 "주아프간 미국대사 출신과 주둔군 사령관 출신 군 고위관계자가 백악관에 병력 유지를 강하게 압박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적 업적은 크게 훼손됐다. 그는 이라크전, 아프간전 종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라크에서는 2011년 12월 사실상 철군을 마쳤지만 미군 철수의 공백을 이용해 이슬람국가(IS)가 준동하는 등 최악의 혼란을 겪고 있다. 아프간에서도 탈레반 세력의 기반이 공고해 이른 시일 내 종전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차기 대통령 등 대통령 3명이 아프간전쟁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시리아와 리비아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 새로운 전쟁이 발발해 전 세계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역사가들은 이런 현실을 오바마 대통령의 '순진한 평화주의' 및 '해외 갈등 불개입 정책'이 빚어

낸 비극으로 기록할 것이다.

#### IS '심자군 살해하겠다' ...방글라데시 추가 테러 예고

지난 1일 발생한 방글라데시 다카 음식점 테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급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가 추가 테러를 벌이겠다고 위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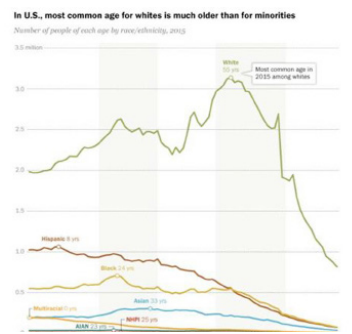
방글라데시 언론매체인 다카트리뷴은 6일 IS가 방글라데시에서 지하드를 촉구하고 다시 테러공격을 예고하는 영상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IS 본거지인 시리아 라카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에는 방글라데시 출신 남성 3명이 등장해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의 '심자군'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스타디움에서 지난 4일 테러 희생자 추모식이 열렸다. 참석한 시민들이 추모하며 화환을 바치고 있다.

이들은 "방글라데시에서 성전을 해왔다"며 "전 세계에서 이슬람 율법 샤리아가 시행될 때까지 심자군에 속한 인간을 살해하는 걸 멈추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이어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나는 지하드(성전)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약속한 것"이라며 "우린 승리하거나 순교자들처럼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다. 우리는 잃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남성은 다카 음식점에서 자행한 인질극이 "많은 무슬림이 살해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미 인종별 중간연령 백인이 43세로 최고

미국에서 백인들의 고령화가 다른 인종에 비해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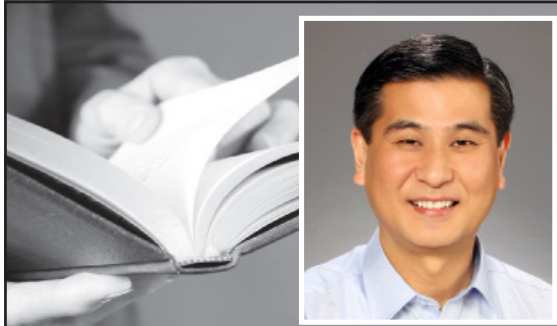
7일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미 연방통계국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백인의 중간 연령은 43세로 아시아계(36세)나 흑인(33세), 히스패닉(28세)보다 훨씬 많아 최고령 인종으로 나타났다.

중간연령은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나이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 위치에 서게 되는 사람의 연령을 뜻한다. 연령별 인구 분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속하게 되는 연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백인의 고령화는 더 두드러진다.

백인의 경우 이 연령이 55세였던데 비해 아시아계는 33세였고, 흑인과 히스패닉은 각각 24세와 8세였다. 퓨리서치센터는 미국 백인의 인구 급증 시기가 주로 '베이비붐 시기'로 불리는 1950년대 전후와 맞물리고, 미국으로 히스패닉이나 라틴계 이민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시기는 그보다 나중이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퓨리서치센터의 연령별 인구분포를 보면 51-69세에서는 히스패닉과 흑인, 아시아계의 인구를 합해도 백인의 수와 비교해 절반 정도에 그치지만, 35세 이하에서는 다른 주요 소수인종의 인구를 합하면 백인의 수에 80-90% 정도까지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전체 인구 중 백인의 비중은 61.6%로 여전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0년에 비해 2.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히스패닉 인구는 16.3%에서 17.6%로, 흑인 인구는 12.6%에서 13.3%로, 아시아계 인구는 4.8%에서 5.6%로 각각 증가했다.



#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62)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 1. 초대 교회 - 신앙의 자유와 경건 (3)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질문의 폭이 너무 넓고 분명하지 않은 듯하지만, 신앙의 길에 서 있는 자신을 향해 자주 던지는 질문일 것이다. 성경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과 함께, 그 신분을 지닌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배우고 적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지 않은 일에 대하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 답일 것이다. 문제는, 성경의 진리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따라 실천하는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질문: 각 성도가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계선이 어느 정도일까?

### 1) 교회 역사를 보면...

#### ■ 갑작스런 변화

313년에 교회가 자유를 얻은 후 한 가지 구체적인 고민거리가 생겼다. 이전에 비해 박과 환란 속에서 숨어 지내고 쫓기며 신앙을 지켰다.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신앙의 절개와 생명의 소중함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환경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순교였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무시무시한 일이다. 특정한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순교의 의미란 무엇일까? 종교가 지닌 가치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항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순교자의 피는 초대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했다. 세상의 가치와 영적 가치를 적당히 혼합할 수 없는 상황이 도리어 기독교의 순수성을 지켜냈다. 가장 어렵고 험한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어야 신앙을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된 이후, 순교의 붉은 피를 통한 ‘증거’가 중단되었다. 교부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기름”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자유가 선언된 후에는 무엇이 교회를 기름지게 하

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증거’를 의미한다. 순교자들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 귀하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 하는 자들로 쓰임을 받았다. 후회 없이 당당하게 죽음을 선택하는 모습은 과위풍한 설교와 버금가는 강력한 힘을 지녔다. 사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 성도의 순교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신앙을 갖게 된 성도들이 적지 않았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된 이후, 순교의 붉은 피를 통한 ‘증거’가 중단되었다. 교부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기름”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자유가 선언된 후에는 무엇이 교회를 기름지게 하

## 갑작스런 신앙 자유에 ‘붉은순교’ 대신 ‘흰색순교’ ‘녹색순교’ 등장 예수 따라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해 존재’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

여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할 수 있었을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져야 했다. 복음 전도자의 입술과 발을 재촉하였다.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적 외적 어려움을 이겨가는 것을 곧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금식과 고행 등으로 극심한 방법으로 자신을 절제하는 삶의 모습을 동경하고 추구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교부 제롬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순교를 ‘흰색 순교’라고 칭하였다. 죽음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색 순교’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의 뜻에 자아를 철저히 죽임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증거’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나아가서 ‘흰색 순교’와 유사하지만 특정한 내용을 지시하는 ‘녹색 순교’의 개념을 중시하기도 하였다. ‘녹색 순교’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들판과 산과 같이 낯설고 힘든 환경에서 거주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세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내면의 세계의 영적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꾀하려는 자들이 선택한 신앙의 길이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후 신앙의 형태가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록 소수이지만 ‘흰색 순교’와 ‘녹색 순교’를 추구하던 자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형태의 경건이 ‘붉은 순교’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와 신앙인의 기본적인 존재 목적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 ■ 청년 안토니

‘백색 순교’ 또는 ‘녹색 순교’의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하자. 애굽의 안토니(Anthony, 251-356)라는 청년이다. 그는 엄청난 부를 지녔던 부모 슬하에서 태어나 귀하게 성장하였는데, 그가 20세가 된 해에 모두 사망하였다. 평생 남다른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던 그였지만,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중대한 신앙적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로 하였다.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말쑥에 진적으로 순종한 것이다. 어떤 내용이었을까?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기를 원한다면 현재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없애고 그 어느 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과거나 현재나 상관없이 스스로 무소유를 결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단한대로 실천에 옮겼다. 그는 소유와 함께 세상을 등졌다.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 정처 없는 삶

규모이지만, 수도원이 시작된 것이다. 이곳에서 그는 이곳을 방문하는 진지한 신앙인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영적 체험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청년 안토니의 삶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한 책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안토니의 생애”는 교부 아타나시우스의 저작으로 알려졌다. 청년 안토니는 100세를 넘게 살았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은 향후 교회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긍정적이며 부정적인-을 주었다.

2) 성경이 보인다 - 마태복음 16:24; 마가복음 8:24; 누가복음 9:23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를 따르는 자이다. 예수가 걸어간 길이 곧 나의 길이 되는 것이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으로 그의 삶을 요약할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다가 나를 부인하는 일과 십자가를 지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성도는 자신을 부정하기 위하여 나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버려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야한다. 자신의 생각과 평안한 삶을 포기하여야 한다. 이 명령을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지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결국 그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였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려면, 죽음 또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교회의 영적 거름이 되었던 순교자들의 피와, 순교자의 각으로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하자. 단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성도 자신의 경건은 물론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사명에 이바지 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covenantcho@yahoo.com



## 그게 그런 뜻이었어?- 성경의 압축과일 풀기 (41)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 로고스와 레마는 과연 다른 것일까?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마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영혼에 부딪혀 와서 어떤 감화와 감동을 주는 말씀이다. 즉 로고스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레마이다. 로고스는 객관적인 말씀이고, 레마는 로고스를 통해 내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

다. 로고스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우리 안에서 레마가 되어야 한다.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마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레마에 대해 알

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 정말 레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일까? 로고스와 레마는 다른 것일까?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dabar’를 헬라어 성경(70인역)으로 번역할 때 logos와 rhema라는 단어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어떤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서 로고스와 레마를 번역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보자.

“할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레마)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지 십삼 년에 여호와와 말씀(로고스)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렘1:1-2).

예레미야의 말은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도 사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 구약성경 전체가 이렇게 두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10: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겹 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렘6:17).

위에 나오는 ‘말씀’은 모두 내가 듣고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레마를 주장하는 이들에 따르면 원문에 모두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두 레마라고 되어 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임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마18:1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마12:36).

여기 나오는 말들은 듣고 깨달은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다. 그런데 모두 레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레마는 특별히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가리킨다.

“오직 너희 말(로고스)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마5:37).

“또 누구든지 말(로고스)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12:32).

위(3번)에서는 인간의 말을 레마로 표현했는데, 여기에서는 로

고스로 표현했다. 로고스와 레마가 서로 혼용되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베드로가 이 말(레마) 할 때에 성령이 말씀(로고스)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행10:44).

여기서 나오는 ‘말’이나 ‘말씀’은 둘 다 베드로가 한 말이다. 그런데 레마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로고스와 레마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로고스와 레마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다. 성경 어디에서도 레마가 깨달은 말씀이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곳은 없다. 로고스와 레마 둘 다 다 같은 뜻을 가진 동의어이다.

레마를 주장하는 자들은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성경 말씀보다 주관적으로 깨달은 말씀을 더 중시한다. 말씀보다 체험을 더 강조한다.

(11으로계속)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r>기타지역 교회                                                                                                                                                                          |                                                                                                                                                                                                                                      |                                                                                                                                                                                                                                      |                                                                                                                                                                                                                                         | 갑보령장로교회                                                                                                                                                                                                                            | 풍곡매리교회                                                                                                                                                                                                                                  | 빅스카운티장로교회                                                                                                                                                                                                                                 |
|-------------------------------------------------------------------------------------------------------------------------------------------------------------------------------------------------|--------------------------------------------------------------------------------------------------------------------------------------------------------------------------------------------------------------------------------------|--------------------------------------------------------------------------------------------------------------------------------------------------------------------------------------------------------------------------------------|-----------------------------------------------------------------------------------------------------------------------------------------------------------------------------------------------------------------------------------------|------------------------------------------------------------------------------------------------------------------------------------------------------------------------------------------------------------------------------------|-----------------------------------------------------------------------------------------------------------------------------------------------------------------------------------------------------------------------------------------|-------------------------------------------------------------------------------------------------------------------------------------------------------------------------------------------------------------------------------------------|
|                                                                                                                                                                                                 |                                                                                                                                                                                                                                      |                                                                                                                                                                                                                                      |                                                                                                                                                                                                                                         | <br>담임목사: 조용철<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일 2부예배: 오전 11:00<br>새벽기도회: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br>오전 8:00(일)<br>Tel: (703) 579-7378, Fax: (703) 579-7379<br>2234 W. Desert Dr., Las Vegas, NV 89146          | <br>담임목사: 리혜곤<br>주일 1부예배: 오전 9: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일 2부예배: 오전 11:00<br>새벽기도회: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br>오전 8:00(일)<br>Tel: (703) 579-7378, Fax: (703) 579-7379<br>2234 W. Desert Dr., Las Vegas, NV 89146               | <br>담임목사: 김동훈<br>주일 1부예배: 오전 9: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일 2부예배: 오전 11:00<br>새벽기도회: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br>오전 8:00(일)<br>Tel: (703) 579-7378, Fax: (703) 579-7379<br>2234 W. Desert Dr., Las Vegas, NV 89146                 |
| 멜벌교회<br><br>담임목사: 박성호<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일 2부예배: 오전 11:00<br>새벽기도회: 오후 7:30<br>Tel: (703) 579-7378, Fax: (703) 579-7379<br>2234 W. Desert Dr., Las Vegas, NV 89146    | 보스턴장로교회<br><br>담임목사: 리혜곤<br>주일 1부예배: 오전 9: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일 2부예배: 오전 11:00<br>새벽기도회: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br>오전 8:00(일)<br>Tel: (703) 579-7378, Fax: (703) 579-7379<br>2234 W. Desert Dr., Las Vegas, NV 89146 | 살롱장로교회<br><br>담임목사: 나성균<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일 2부예배: 오전 11:00<br>새벽기도회: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br>오전 8:00(일)<br>Tel: (703) 579-7378, Fax: (703) 579-7379<br>2234 W. Desert Dr., Las Vegas, NV 89146  | 시애틀평강장로교회<br><br>담임목사: 박성호<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일 2부예배: 오전 11:00<br>새벽기도회: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br>오전 8:00(일)<br>Tel: (703) 579-7378, Fax: (703) 579-7379<br>2234 W. Desert Dr., Las Vegas, NV 89146  | 안디옥교회<br><br>담임목사: 강준수<br>주일 1부예배: 오전 9: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일 2부예배: 오전 11:00<br>새벽기도회: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br>오전 8:00(일)<br>Tel: (703) 579-7378, Fax: (703) 579-7379<br>2234 W. Desert Dr., Las Vegas, NV 89146 | 알칸사 제자들교회<br><br>담임목사: 리혜곤<br>주일 1부예배: 오전 9: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일 2부예배: 오전 11:00<br>새벽기도회: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br>오전 8:00(일)<br>Tel: (703) 579-7378, Fax: (703) 579-7379<br>2234 W. Desert Dr., Las Vegas, NV 89146  | 앵커리지델린교회<br><br>담임목사: 리혜곤<br>주일 1부예배: 오전 9: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일 2부예배: 오전 11:00<br>새벽기도회: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br>오전 8:00(일)<br>Tel: (703) 579-7378, Fax: (703) 579-7379<br>2234 W. Desert Dr., Las Vegas, NV 89146     |
| 엘파소델린교회<br><br>담임목사: 리혜곤<br>주일 1부예배: 오전 9: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일 2부예배: 오전 11:00<br>새벽기도회: 오후 7:30<br>Tel: (703) 579-7378, Fax: (703) 579-7379<br>2234 W. Desert Dr., Las Vegas, NV 89146 | 영성장로교회<br><br>담임목사: 리혜곤<br>주일 1부예배: 오전 9: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일 2부예배: 오전 11:00<br>새벽기도회: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br>오전 8:00(일)<br>Tel: (703) 579-7378, Fax: (703) 579-7379<br>2234 W. Desert Dr., Las Vegas, NV 89146  | 립린은누리교회<br><br>담임목사: 리혜곤<br>주일 1부예배: 오전 9: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일 2부예배: 오전 11:00<br>새벽기도회: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br>오전 8:00(일)<br>Tel: (703) 579-7378, Fax: (703) 579-7379<br>2234 W. Desert Dr., Las Vegas, NV 89146 |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r><br>담임목사: 리혜곤<br>주일 1부예배: 오전 9: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일 2부예배: 오전 11:00<br>새벽기도회: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br>오전 8:00(일)<br>Tel: (703) 579-7378, Fax: (703) 579-7379<br>2234 W. Desert Dr., Las Vegas, NV 89146 | 주애수교회<br><br>담임목사: 리혜곤<br>주일 1부예배: 오전 9: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일 2부예배: 오전 11:00<br>새벽기도회: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br>오전 8:00(일)<br>Tel: (703) 579-7378, Fax: (703) 579-7379<br>2234 W. Desert Dr., Las Vegas, NV 89146 | 타코마 한인장로교회<br><br>담임목사: 리혜곤<br>주일 1부예배: 오전 9: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일 2부예배: 오전 11:00<br>새벽기도회: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br>오전 8:00(일)<br>Tel: (703) 579-7378, Fax: (703) 579-7379<br>2234 W. Desert Dr., Las Vegas, NV 89146 |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r><br>담임목사: 리혜곤<br>주일 1부예배: 오전 9: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일 2부예배: 오전 11:00<br>새벽기도회: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br>오전 8:00(일)<br>Tel: (703) 579-7378, Fax: (703) 579-7379<br>2234 W. Desert Dr., Las Vegas, NV 89146 |



움직임에는 다 소리가 난다. 그러나 그 어떤 움직임보다 더 중요한 움직임이 있다. 바로 숨을 쉬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 움직임이 멎으면 더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생명체다.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거나 기절한 사람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이 뛰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숨소리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

어떤 드라마를 보니 전화를 받고도 아무 말이 없는 상대에게 하는 말이 애잔했다. “인간적으로 숨소리 한번 내줍니다.” 말이 들리고 살아 있다는 증거를 숨소리로 알게 하라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나로 느끼게 해달라는 것이다. 어찌 생각하면 참 야속한 요망이기도 하다. 설사 혼자 한 사람일지라도 숨소리마저 감추는 것은 동양적 사고(思考)로는 야박할 수밖에 없다.

숨소리는 참 시사(時事)하는 바가 크다. 몸의 어딘가가 불편하여 병원에 가면 의사는 가장 먼저 청진기를 가지고 가슴과 등에 대고는 숨 쉬는 여부를 진단한다. 의사에게 있어 청진기는 그 직업의 트레이드마크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 청진기의 역할이 숨을 쉬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인 것이다. 몸의 어떤 부위를 다쳤다 해도 그 몸의 상태를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숨을 쉬는 여부가 된다. 숨소리가 거칠거나 미약하면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긴장했을 때도 숨소리를 죽인다. 누군가에게 쫓겨 어딘가에 숨었을 때 가장 먼저 조심하는 것은 숨소리다. 동물들의 생태를 봐도 비슷하다. 쫓기는 동물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감추며 숨소리를 죽이지

토요칼럼

숨소리

만 사냥을 하기 위해 접근하는 사자나 호랑이도 상대가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기척을 죽인다. 이때의 숨소리 즉 기척은 생사와도 직결이 된다. 잡혀서 먹히느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잡지 못해 먹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일본의 유명한 살수집단인 인자(忍者)들이 가장 먼저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숨소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한다. 사격(射擊)훈련에도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숨 쉬기다. 명사수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이 숨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달려 있다. 살기 위해 절대로 등한할 수 없는 숨 쉬기는 삶의 전반을 진단하는 바로미터도 된다.

기적(奇蹟)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을 가리킨다. 따라서 인체의 신비는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체의 신비를 밝혀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사람의 핏줄 길이가 지구 둘레보다 더 길다거나 거의 셀 수조차 없는 세포가 있고 분명 존재하되 어디에 있는지



김한맥 목사

자 밝혀내지 못하는 마음 혹은 생각의 영역은 수수께끼다. 성경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이리저리 옮길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사람이 자기 자신을 거의 알지 못하면서도 거침없이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거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에는 매우 다양한 기능이 들어 있다. 다만 그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몸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도 본능적으로 가장 적절히 반응을 하며 몸을 움직인다. 요즘 TV에서는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좀 색다른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본다하여 자기 몸의 신비를 풀어내지는 못한다. 본능(本能)은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감각 혹은 반응이며 이는 창조주가 넣어놓으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나 물질문명의 발달로 밝혀질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의 영역이라는 말이다.

기적 중에는 숨소리로 포함이 된다. 호흡기관의 정

상적인 활동에 의해 심장을 계속 뛰도록 하는 비결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안하시고 유지시켜 가시는 능력에 속한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미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물건을 팔고 보증하거나 수리를 해주는 기간이 길어야 10년에 불과한 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 그가 죽을 때까지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살아 있는 나의 옆에서 살아 있다는 증표가 되는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안심의 조건이 된다. 설사 그를 알지 못한다 해도 그가 사람이라는 그 자체로 안심이 된다. 지금 누구의 숨소리가 들리는가?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숨소리라면 더없이 행복할 것이다. 지켜줘야 할 사람의 숨소리라면 보람과 더불어 책임감을 고취할 것이다. 손을 맞잡을 사람의 숨소리라면 시작이 염려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숨소리를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면 그 삶은 반석과 같이 든든하고 천군만마의 호위를 받는 안위함으로 요동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가늠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숨결을 붙잡고 계신다. 나의 콧김으로 불어내는 숨소리가 나쁜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다.

hanmac@cmi153.org

[정정] 지난 제1591호 9면에 게재된 “목회서신”(이재근 목사)의 제목이 “3종적 존재의 6가지 그룹”이었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2016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10월 1일 마감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가 ‘2016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독후감공모전을 실시하는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사역이 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실시한다.

참가대상은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및 목회자, 사모 등이며 추천도서 6권을 읽고 레터 용지 3장 분량(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의 독후감을 10월 1일

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는 wkcmmailbox@gmail.com

이며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 교회, 전화번호,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이번 독후감 응모전 도서는 △복음(폴 워서 저, 생명의말씀사) △위기의 그리스도인(마틴 로이드 존스 저, 지평서원) △하나님의 침묵(겐 카이저 저, 디모데) △직설(박영선·김관성 저, 두란노) △뿌리 깊은 영성(강준민 저, 두란노) △나는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입니다(세바스찬 트레거·그렉 길버트 저, 생명의말씀사)로 선정됐

다. 시상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이들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시상은 최우수상 1명(1천 달러), 우수상 2명(5백 달러), 장려상 3명(2백 달러)이다.

수상자는 11월 1일 경에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된다. 시상식은 12월초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도서 구입은 다음의 후원 기독교서점협회 서적을 통해 할 수 있다.

기독교서적 (323)737-7699/ 두란노서원 (213)382-5400/ 말씀사 (714)530-2211/ 베델서적 (949)854-9191.

(이성자 기자)



예정백석 캘리포니아 노회 & 사랑방미션 동성애에 대한 복음적 해법 세미나에서 이요나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복음적 해법 세미나’ 예정백석 CA노회 & 사랑방미션, 강사 이요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캘리포니아 노회(노회장 류낙영 목사)와 사랑방미션(검침이 신남식 목사)이 공동 주최한 ‘동성애에 대한 복음적 해법 세미나’가 8일 오전 10시30분 남가주성서교회(담임 안병준 목사)에서 개최됐다.

목회자와 사모 그리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탈동성애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홀리라이프 대표 이요나 목사가 강

사로 나서 동성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이요나 목사는 동성애가 현대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원인으로 △동성애 성문화 음모 △동성애 정치적 음모 △동성애 종교적 음모에 대해 설명했다.

이요나 목사는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동성애 반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동성애자들의 탈출을 돕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교회 내에 동성애자들이 있다. 그들 중에는 동성애문제에 고민하는 자들이 있다. 설교시간에 목회자가 동성애자들은 지옥에 갈 자들이라고 저주를 하는데 그러한 발언 때문에 자살을 하는 자들이 많다”고 언급하고, “신학생 중에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성향에 대해 해결하기위한 탈출구로 신학도의 길을 가게 된 것”이라 말하며, “이들을 위해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지옥에 갈 자들이라 저주할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를 때까지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동성애자들은 우리들의 형제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 우리들의 삶은 죄인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를 역행하는 악한 죄이며 특별한 죄다. 이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죄다. 구약에는 동성애에 대해 해결할 방법이 없어 돌로 쳐 죽였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며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해놓으셨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한인미국지사 우성 박용만 탄신 135주년 기념 1000만 한국인 미국이민운동 발대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1000만 한국인 미국이민운동 발대 박용만 탄신135주년 기념...오병익 총재 추대

미주한인미국지사 우성 박용만 탄신 135주년 기념 1000만 한국인 미국이민운동 발대 행사가 5일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김진이 회장(LA시민권자협회) 사회로 시작된 1부 기념 및 발대 행사는 임기수 목사(USNDC 제8-Eagle 사단장)의 개회기도로 시

작해 국민의례, 묵념으로 이어졌다.

이어 1000만 한국인 미국이민운동 오병익 총재 추대, 애국지사 후손 대상(수상자: 권성주 회장), 피터윤 알래스카 회장 위촉이 있었으며, 앤젤라박(한인소년병학교 학생회장)에게 공로상이 수여됐다.

이어 박상원 회장(박용만기념재단 회장/미국이민운동 상임대표)이 박용만 장군 탄신 135주년 기념사 및 발대 취지를 발표했으며, 오병익 목사(남가주 베델교회 담임)가 1000만 한국인 미국이민운동 의의와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정광석 회장(영화인협회), 지희승 회장(글로벌여러린이재단), 최학량 목사(이승만기념사업회)가 축사했다.

2부는 오찬을 겸한 덕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NCKPC 제45회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가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렸다.

NCKPC 총회장에 심평중 목사 선출 제45회 정기총회, 부총회장 최병호 목사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제45회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가 "정의, 평화, 선교: 한인교회의 공동체적 사명"(미6:8)이라는 주제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오클라호마시티 소재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30일 오후에 열린 회무 처리를 통해 △총회장 심평중 목사(로턴 한인장로교회), △목사 부총회장 최병호 목사(아틀란타 베다니교회), 평신도 부총회장 이귀호 장로(호산나교회) △사무총장 신정인 목사 △협동총무 김형주 목사(인디애나폴리스한인장로교회) △서기 박성주 목사(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회계 채희철 장로(인디애나폴리스한인장로교회) △감사 김일 장로, 양정아 장로 △남선교회 대표 김길수 장로 △여선교회 대표 최경화 장로 등을 선출했다.

총회장에 선출된 심평중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A-G 알파벳을 이용한 회기의 방향성을 밝히며 "(Ahead) 목표이다. 우리 NCKPC가 미국장로교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목표가 분명한 것을 믿는다.

하해, 정의, 평화 그리고 한인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선교의 사명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 (Believe)무엇보다 믿음이다. 부총회장 된 후에 1년간 성도들과 매일 통성기도를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했다. (Cooperation)여러분들의 도움없이 제가 혼자 일할 수 없다. (Divide)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 아무리 세상이 세속화되어 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는다. (Experience Holy Spirit)성령의 체험과 능력으로 NCKPC 모든 회원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 (Focus)하브리스 12:1 이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총회와 회원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겠다. (Glory)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NCKPC와 회원들이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취임사를 했다.

NCKPC 현안은 역시 미국장로교의 동성애 관련 정책과 더불어 미국장로교 소속 여러 한인교회들이 교단을 떠나려고 한다는 것.

2016 THE SPIRIT OF KOREA “만남과 소통” 윤학원코랄-LAKMA과이어 콜라보 무대 기대

LAKMA(Los Angeles Korean-American Musicians' Association)가 주최하는 2016년 LAKMA 정기연주회가 LA 최고의 명소 월드디즈니홀에서 8월 5일(금) 오후 8시에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한국의 열(The Spirit of Korea)'이라는 대 주제 아래 “만남과 소통” 소주제를 갖고 아래 4가지의 의미를 담은 음악회로 개최하게 된다.

첫 주제 ‘고국과 이민자들의 만남과 소통’은 한국합창음악계의 대부이며 세계합창연합회(IFCM)이사과 월드과이어 게임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윤학원 교수가 이끄는 한국의 ‘윤학원 코랄’과 미주 한인사회의 음악리더 윤임상 교수가 이끄는 다민족 구성의 “LAKMA과이어”가 함께 만나 서로 특성에 맞는 각각의 합창 음악들을 선보이고 또 이 두 합창단이 함께 부르는



OMC & KAMA 서머뮤직 페스티벌 성향

OMC(Orange Mission Choir 단장 최영민, 지휘 장진영) & KAMA(Korean American Music Academy 단장 한정자, 지휘 송중현) 서머뮤직 페스티벌이 월서연

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10일 오후 6시 성황리에 열렸다 (위 사진).

김형구 목사(OMC 단독)의 기도로 시작된 페스티벌은 KAMA여성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된다.

이외에도 ‘한민족과 타민족의 만남과 소통’ ‘동과서양음악의 만남과 소통’ ‘1세와 2세의 만남과 소통’ 주제로 개최돼 단순한 음악연주회가 아닌 하나의 “관객”라는 드라마를 연출하는 의미 있는 음악회가 될 것을 확신하고, 이로 인해 청중들과 함께 한국음악문화의 뛰어난 함께 공감하고 우리 2세들과 타민족과 함께 나누는 감동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213)235-8972(김재숙 단무장)로 하면 된다.

(7기사제공: LAKMA)

합창단과 OMC남성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해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페스티벌에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내 영혼이 은총 임어’, ‘찬양의 삶’ 등 성가곡과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 가요를 불렀으며 ‘축복의 길’과 ‘우리 승리하리라’는 두 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불렀다.

또한 KAMA소년소녀 합창단(지휘 류지원)이 찬조 출연해 공연을 빛냈다.

(박준호 기자)



# 나성영락교회 김경진 목사 면직

당회결의 없이 공동의회 직권남용, 장로 2인 시무정지 결정

지난 4월 당회의 김경진 목사 불신임안으로 촉발된 나성영락교회 사태 수습을 위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재판에서 김경진 목사의 '면직' 결정으로 남가주 교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KPCA 총회는 지난 5월과 6월 양일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열린 나성영락교회 재판에서 담임목사인 김경진 목사를 면직하고, 지난 4월 24일 열린 당회에서 김 목사 불신임안을 주도한 두 장로에게 각

1년, 6개월의 시무정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국장 조기봉 목사와 서기, 9명의 재판국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재판에서 김경진 목사 '면직'과 두 명의 시무장로에 대한 '시무정지'는 재판국원 전원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

총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2박 3일 동안 어떠한 외부와의 접촉도 없이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후 내려진 판결"

이라 언급했다.

총회 재판국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4년과 2015년 안수집사를 중심으로 당회를 와해하려는 시도가 담긴 2건의 문건이 발견되었으며 △4월 24일 열린 당회의 8시간의 녹음과일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김경진 목사 불신임 논의가 기록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측은 이러한 과정들이 '장로

교의 정치원리'를 깨뜨리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김 목사의 면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 재판국에서 협의한 결과는 현재 나성영락교회 당회와 서도회에 각각 통보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진 목사는 전 담임목사였던 립형천 목사가 사임한 이후 1년 남짓 공석 중이던 나성영락교회의 공동의회에서 참석한 제직 2,000명의 전원 찬성으로 지난 2013년 1월 13일 제4대 담임으로 확정돼 나성영락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한편 10일 예배는 안용주 목사, 노영호 목사가 설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은혜성로원교회 설립8주년 및 취임 감사예배후 기념 촬영하다.

## 은혜성로원교회 설립8주년 및 취임 감사예배 장로 3명, 안수집사 3명, 권사 11명 취임

은혜성로원교회(담임 김상호 목사) 설립 8주년 예배 및 취임 감사예배가 10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김상호 목사는 "8주년 기념예배 및 취임감사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모든 취임한 자들은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둘째,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영혼구원에 대해 달려가야 한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심정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기도해야 하며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교회로 이끌어갈 것"이라 말했다.

김상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고용우 장로가 대표기도 했으

며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송정명 목사(월트미션대학교 총장)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살전 1:2-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상호 목사가 임직 및 서약을 인도했으며 박형만 장로가 임직자 인사말을, 조현주 집사가 축가를 그리고 김원종 목사(GMBI)가 권면 및 축사했으며 송정명 목사가 축도했다.

다음은 임직자 명단이다. △장로: 박형만, 백선길, 고용우 △안수집사: 김문석, 손덕수 △권사: 김경애, 김문식, 박숙희, 박학례, 손모희, 심광분, 양정자, 이덕례, 장경자, 최서숙, 최영순.

(박준호 기자)



세월호 의인 고 김관홍 잠수사 영정 사진.

## 세월호 의인 고 김관홍 잠수사 추모예배

지난 17일 지방과 생활고로 세상을 떠난 세월호 의인 고(故) 김관홍 잠수사 추모예배가 지난 2일 마음이가난한사람들의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에서 열렸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LA 기독교인 모임' 주최로 열린 이번 추모예배엔 약 80여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현주 씨의 사회로 진행됐다.

신앙고백과 함께 진행된 예배는 최재영 목사(NK비전 2020)가 대표기도를 맡고, 찬양팀과 CCM 반주를 위한 강의를 김경민 교수가 맡는다. 찬양대 반주자를 위해 강의는 Risa Edwards 교수는 LA.마스터코랄 반주자.

이처럼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 중인 교수들이 대거 조빙된 이번 세미나는 찬양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회비는 지휘자, 반주자 75달러, 일반 30달러. 자세한 것은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홈페이지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계속> 소비자 중심주의 태도를 없애야 한다. 마치 물건을 자신의 기호에 맞게 사듯이, 자기만족 기쁨 편안함이 목적인 소비자 중심의 소비주의가 되면 안된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하늘 문을 열고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누릴 만족과 기쁨이다.

앞으로 미래는 예배의 장소뿐 아니라, 시간도 마음대로 정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중심이 아닌, 예배드리는 소비자형태의 성도

중심으로 편리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도 이에 발맞추어 모든 상황들이 주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로 변경시켜 갈 것이다. 그 뿐인가? 예전에는 교회 가는 일 때문에 교회화를 하는 일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자식과의 싸움이 되었는데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선을 위헤지나가는 아픔의 시간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러한 고통을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할 틈도 없이 너무나 잘 알아서 해결하고 타협하더라는 것이다. 스스로 알아서 적당히 타협하고 이해하니,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도 없고 더불어 신

## 서부교계 게시판

West

### 미주기독교방송국 이전

LA미주기독교방송(KCBN 대표 남철우 목사)이 6가와 카타리나 코너에 위치한 MBC미주본사 건물(3400 W. 6th St. #310 L.A. CA 90020)로 8월 1일 이전한다. LA미주기독교방송은 1998년 11월 1일 설립된 비영리 기독교선교방송국으로 AM 1650Khz를 통해 주 29시간, FM 91.5Mhz서브캐리어 방식으로 24시간 LA를 비롯한 남가주 일원에 24시간 방송하고 있다.

▲문의: (213)383-6800

### 남가주사랑의교회 여름성령축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여름성령축제가 28일(목)부터 31일(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담임)이며 시간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7시30분, 그리고 주일예배 시간.

▲문의: (714)772-7777

### 울타리선교회 노숙자위한 음악회

울타리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가 노숙자를 위한 음악회를 8월 4일(목) 오후 7시30분 월트디즈니 홀에서 갖는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를 테마로 열리는 음악회는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학생합창단 '이화첼버과 이어'와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음악인들이 참여해 화합의 한마당을 갖게 된다. 음악회 티켓은 30달러.

▲문의: (818)400-7278

### 은혜한인교회 장애인 여름성경학교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제11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름성경학교를 25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개최한다. 선착순 30명에 한해 갖게 되는 여름성경학교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문의: (714)497-6059

### 샬롬장애인선교회 콘서트

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주최하는 제 13회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부제 휠체어 사랑이야기)가 17일(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콘서트는 소프라노 박유진, LA남성선교합창단, SCDC수화찬양팀, 유엔젤보이스, SDM 찬양팀이 출연한다.

▲문의: (213)369-0053



아주사퍼시픽신학교에서 열린 사해사본 강의에서 바비듀크 박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

## 1947년 첫 발견...성경, 외경 등 3종류

APS 바비 듀크 박사, 사해사본 오픈 강의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아시안프로그래(APS 디렉터 변명혜 박사)은 사해사본 강의를 11일 정오에 APU LA센터(디렉터 도날드 브라운 박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아주사퍼시픽신학교 학장서리이자 성지탐색과 사해사본 권위자인 바비 듀크 박사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으며 본교 한인 재학생과 동문, 그리고 사해사본 강의에 관심 있는 교인들이 참석해 진지한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듀크 박사는 "1세기 사해근방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은 3종류로 돼 있다. 첫째는 성경이며 두 번째는 외경과 위경,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 사해지방의 각 종파들의 문서인데 그들 공동체의 삶의 지침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해사본이 보관돼있는 동굴은 1947년 초, 쿠파에서 첫 번째로 발견됐으며 56년 1월까지 사본이 보관돼있는 11개의 동굴이 발견됐다"며 "사해사본이 47년에 발견된 후 두 번째 동굴이 발견될

때까지 4년의 공백이 있었다. 이는 48년 이스라엘 독립 후 요르단과 아랍국가들과의 전쟁으로 인한 것"이라 말했다.

그는 "사해사본은 사해근방에서 거주하고 있던 베두인부족들에 의해 외부로 유출이 됐다. 이는 베두인부족들이 사해사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 때문"이라고 말하고 "1991년 마침내 많은 학자들이 사해사본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며 "현재 클레어몬트신학교와 헌팅턴라이브러리에 전집이 마이크로피시(책의 각 페이지를 축소 촬영한 시트 필름)로 보관돼 예루살렘 보관 사해사본 손상을 대비"하고 있다고 사해사본에 관련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듀크 박사는 "현재 APU는 5점의 사해사본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입수한 것들이다. 이는 베두인 부족으로부터 입수된 것으로 출애굽기 1점, 레위기 1점, 신명기 2점, 다니엘서 1점"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양의 아름다운 간증도 없어지더라는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 오늘날 인터넷을 보면, 십일조나 주일성수를 강조하는 목사님을 향해 율법적이라고 공격하는 일들이 많음을 본다. 예배하는 날로 정하신 주일도 마음대로 바꾸고, 교회에 배당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선 각자처럼 대우받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저것 편리하게 다 바꾸게 되면, 나중에는 편안하게 팬티바람으로 집에 앉아서 다 할 것이다. 망하는 세대, 타락하는 세대의 모습이다.

이 악한 세대는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려는 우리에게 요구한다.

'편하게 믿어라. 뭘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말한다. 적당히 섞여 살아라'라고 말한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말씀대로 지키자고 하면, 율법적이라고 말한다. 그 내면 속 깊은한 곳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과 멀어지게 하는 바로의 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신앙은 편리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악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편리하고 편한 것만이 발전과 성숙은 아닌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 소망소사이어티 무료법률상담사업 중단

한인사회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전개해온 소망소사이어티 무료법률 상담이 중단된다.

한인변호사회 1세인 서동성 변호사가 그동안 총 33건의 법률상담을 맡아왔는데 7월부터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상담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 소망소사이어티는 앞으로 법률상담이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방법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지역은 LA한미변호사회협회가 무료법률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OC 지역

은 오렌지카운티 한미변호사회협회에서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기에 한인사회 주민들이 그 단체들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성 변호사는 소망소사이어티의 무료법률상담은 일단 중단하지만, 계속해서 소망소사이어티의 법률고문을 맡을 것이며 본인의 전문분야인 회사법, 부동산법, 가정법, 민사소송사건 등 현재까지 다루은 분야는 소망소사이어티를 통해 선약하면 개인적으로 자문해줄 것이라 약속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 주최 교회음악세미나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김원재)는 오는 8월 6일 오후 4시 30분부터 9시30분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을 위한 교회음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미 한국에서는 매해 열리고 있는 세미나로 미주에 있는 성도들이 한국으로 가서 세미나를 참석해 오고 있는 것을 감안, 올해에는 남가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본 세미나에는 박신화 교수, 임한규 교수, Lisa Edwards, 김경민 교수가 초빙됐다. 찬양대 지휘자를 위한 세미나를 강의하게 된 박신화 교수는 이화여자 교수로 극동방송 '성가산책'을 진행하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초빙교수, 추계예술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한

임한규 교수는 오케스트라 관련 강의를 맡고, 찬양팀과 CCM 반주를 위한 강의는 김경민 교수가 맡는다. 찬양대 반주자를 위해 강의는 Risa Edwards 교수는 LA.마스터코랄 반주자.

이처럼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 중인 교수들이 대거 조빙된 이번 세미나는 찬양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회비는 지휘자, 반주자 75달러, 일반 30달러. 자세한 것은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홈페이지

http://kcmasc.org에서 볼 수 있으며 사전등록을 원한다.

(정리: 이성자 기자)

##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7면에서계속>

보편적인 말씀보다는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계시와 같은 말씀을 더 바라고 의지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이다. 깨달아 아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레마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없다.

레마를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히4:12)하게 하려면 로고스가 로고스로 머물러 있으면 안되고 레마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히브리어 4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가 아니고 로고스이다.

jinhlee1004@yahoo.com

## “오직 성경으로 복음통일 이루자”

### 23개 장로교단 한장총 ‘제8회 장로교의 날’

“한국교회 하나 됨을 실천하자! 실천하자!” “국민출애굽으로 복음 통일 실천하자! 실천하자!”

한국 장로교회 4000여 성도들이 경기도 용인 수지구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 예배당을 가득 메운 채 ‘연합과 통일’을 외쳤다. 국민출애굽은 남북분단 등 이 땅의 현실을 출애굽기의 애굽 상황에 비유한 것이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백남선 목사)는 10일 이곳에서 ‘제8회 장로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은 종교개혁자 장 칼뱅의 탄생일이다.

백남선 대표회장은 개회사에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한국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민족의 복음통일을 이루자”고 호소했다.

23개 장로교단이 참여하는 한국 장로교회의 최대 연합행사인 만큼 각 교단 총회장들이 순서를 맡아 차례로 등단하며 올해 주제인 ‘한국교회 연합하여 국민출애굽, 복음 통일 이루자’의 의미를 채워나갔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벤후 3:11-13)를 주제로 설교한 박무용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은 “우리는 지금 무엇이 기준인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

다”며 ‘인간의 탐욕’을 그 배경으로 지적했다. 이어 “오직 성경만이 사람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기준”이라며 “장로교회 성도들부터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다는 심정으로 이슬람과 이단, 동성애 등 이 시대의 위협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찬식 집례는 준비위원장인 채영남 예장통합 총회장이 맡았다. 채총회장은 “거룩하신 성찬 앞에 우리 모두 주의 몸된 교회를 감기갈기 찢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 되기를 선언하자”며 박 총회장과 신상현(예장고신) 최부옥(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을 다시 등단시켰다.

네 사람은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제 하나 되겠습니다”라고 외치며 성도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다. 안만길(예장합신) 문효식(예장고신) 김희신(예장피어선) 엄인제(합동통신) 김국경(합동선목) 총회장은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장로교회의 영적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전용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과 여성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도 방문해 한국 장로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한장총은 한국교회 5000기도단을 출범시키고 ‘탈북민 사회적응 및 생업 지원’ ‘통일인재 양성’ ‘북한 지역 농축산복합영농범 교육’ 등 탈북민들을 품으며 통일의 사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역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 크리스천 선수들 “세상 이기신 주 새 힘 주시라~”

### 리우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필승기원 예배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네게 새 힘 늘 주시라~”

6일 저녁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 ‘파송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다음 달 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펼쳐지는 지구촌의 스포츠 축제 제31회 하계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열린 대한민국 선수단 필승기원 예배에서다.

예배에는 남자 유도 간판스타 안바울(22·유도) 등 기록 선수들을 비롯해 70여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석해 정정당당한 승부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예배는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원희(유도) 코치의 사회로 시작했다. 기도는 서정복(유도) 감독

이 맡았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의 영광을 위해 올림픽에 출전하게 하심을 감사한다”며 “땀 흘려 갈고 닦은 기량을 남김없이 발휘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지켜 달라”고 기도했다.

이어 합심기도 시간이 되자 선수들은 주먹을 불끈 채 올림핀 필승과 스포츠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외치며 기도했다. 일부 선수들은 붉게 그을린 볼 위로 붉은 눈물을 쏟기도 했다. 합심기도는 3분간 이어졌고 중간중간 부르는 찬송은 비장감이 흘렀다. 눈을 지그시 감고 찬송을 부르는 선수들도 눈에 띄었다.

세계스포츠선교회 올림픽선교위원회 대표회장 김봉준(구로순복음교회) 목사는 “승부에서 이기는 힘

은 테크닉도, 운도 아닌 오직 믿음에 있다”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경기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메달을 따든지 못 따든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보배”라며 “건강한 몸으로 컨디션을 잘 유지해 국민들에게 멋진 경기를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상 태릉선수촌장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선수촌을 방문해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했다”며 “예배를 통한 응원기도의 힘까지 더해져 선수들의 사기가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소 선수촌에서 선수들을 만날 때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실력보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메달을 거머쥔다’고 얘기해준다”며 선수들에 대한 애정을 전했다.

챔피언하우스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국가대표기독선수회의 예배가 진행된다. 현재 16개 종목 90여명의 국가대표와 20여명의 지도자들이 선수회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선수회 예배 협력 사역을 펼치고 있는 윤덕신 올림픽선교위원회 실무회장은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밤낮이 바뀌는 데다 지카바이러스 파동으로 질병 감염 위험도 있어 어느 때보다 선수들의 건강관리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예장합동, 이단대책 법률자문단 출범

### 12명 법률 전문가 위촉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이 12일 한국교회 교단으로는 처음으로 이단·사이비 집단들의 법적 공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 지난해 제100회 총회에서 법률자문단 출범을 결의하고, 지난 5월 이단(사이비) 대책선언문을 공포하는 등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한 결과물이다.

출발식에서는 김승규(할렐루야교회) 박기준(열린교회) 고영일(청담아름다운교회) 변호사 등 12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자문위원들은 향후 정기모임을 통해 이단 집단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교단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변호인으로도 나설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법률자문단 출범은 거세어지는 이단 집단의 법적 공세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선포하는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이단과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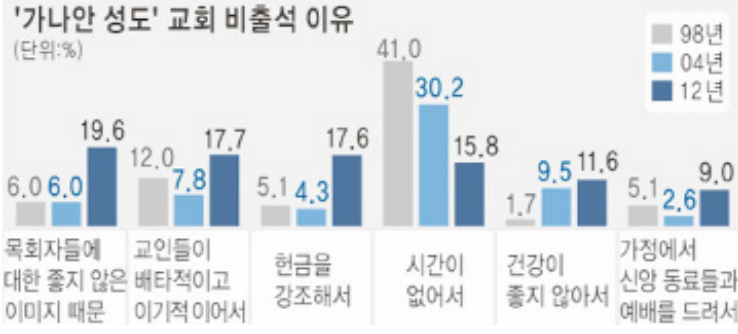
된 법적 대응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자문단 출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담 인력을 두고 조직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 차원의 모금활동을 펼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단대책위원장 박호근 목사는 “오늘 법률자문단 출범을 통해 현재 협력하고 있는 7개 교단 이대위의 자문단 출범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교단뿐 아니라 기독교 언론들을 대상으로 한 이단집단의 소송 등 공교회적인 법적 공세에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장합동은 이날 발표한 법률자문단 출범 선언문에서 ‘이단(사이비) 대책 사역 중 일어나는 고소·고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것’ ‘총회 명칭과 로고를 사용한 위장 교회 및 단체의 피해에 적극 대처할 것’ ‘산하 기관 무단침투, 업무방해에 강력 대처할 것’ 등을 천명했다.

## 교회 비출석 이유, 부정적 인식

### 크리스천 10명 중 1명 ‘가나안 성도’



한국교회 성도 가운데 ‘가나안 성도’(기독교를 믿으나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를 지칭하는 조어)는 1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김경원 목사)는 2012년 11월 19세 이상 평신도 1000명과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뒤 1998년과 2004년 같은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와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가나안 성도 비율은 10% 안팎으로 비슷했다. 다만 가나안 성도가 된 이유는 달라졌다. 과거에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월등히 높았으나 최근에는 ‘목회자나 교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주된 이유였다.

## “미, 교회·양심 지닌 이들이 침묵했기 때문”

### 차세대바라세우기학부모연합 포럼 한국동성에 대처방안 논의

차세대바라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 원회관에서 ‘미국 혐오범죄법 동향과 대처포럼’을 개최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미국의 상황을 청취한 뒤 한국교회의 동성에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반동성애 운동을 펼치는 김사라 티베렉스트 대표는 “미국이 지금까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등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 이유는 양심을 지닌 사람들이 침묵했기 때문”이라며 “비성경적이고 부도덕한 법이 통과되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교과서가 만들어지는데도 미국교회와 목회자들은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들도 돈 버는 데 바빠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눈치 채지 못했다”면서 “그 사이 미국의 공립학교는 자녀들에게 부도덕한 가치관을 세뇌시켰다”고 분석했다.

## “할랄산업은 우리 경제에 도움 안된다”

### 교회언론회 논평 “미래 먹거리, 수출 신산업 아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9일 ‘할랄산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도 아니요 수출 신산업도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슬람의 할랄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부당함을 여러 문제점을 들어 지적하고,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그래서인지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7월 발표에서 이슬람의 할랄 산업을 유대국의 코셔(성결식품) 산업을 묶어서 주력 수출 신산업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문제는 할랄 산

김 대표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동성애가 더욱 확산됐는데 그 결과 동성에 치유상담이 전면 금지되고 정부 요직에 동성애자들이 대거 진출했다. 심지어 학교 내 남녀화장실 구분마저 차별로 규정하고 없애려 한다”면서 “이같은 친동성애 관련 정책을 텍사스주 등 미국 중부 지역의 ‘바이블 벨트’가 간신히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고 싶다면 선거 때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정치인을 선출하고 친동성애 관련법을 적극 저지해야 한다”면서 “특히 10·50년 뒤를 바라보며 중장기 대응전략을 세우고 동성애 단체가 정부 단체로 등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발표에서 김승규 전 법무장관과 새누리당 이해훈 의원, 김지연 차학연 대표는 동성애 문화로부터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업이 정부가 발표하대로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할랄산업 육성은 무슬림들의 일자리 창출이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슬람인구 대거 유입으로 인한 국가안보 불안과 종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또 할랄 인증과 유지를 위해 기업에 이슬람 율법에 종속시키고, 막대한 혈세낭비와 국부자출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                                                                                                                                                                                                                                                                             |                                                                                                                                                                                                                                                                                |                                                                                                                                                                                                                                                                                |                                                                                                                                                                                                                                                                                |                                                                                                                                                                                                                                                                                                                          |                                                                                                                                                                                                                                                                              |                                                                                                                                                                                                                                                                            |
|-----------------------------------------------------------------------------------------------------------------------------------------------------------------------------------------------------------------------------------------------------------------------------|--------------------------------------------------------------------------------------------------------------------------------------------------------------------------------------------------------------------------------------------------------------------------------|--------------------------------------------------------------------------------------------------------------------------------------------------------------------------------------------------------------------------------------------------------------------------------|--------------------------------------------------------------------------------------------------------------------------------------------------------------------------------------------------------------------------------------------------------------------------------|--------------------------------------------------------------------------------------------------------------------------------------------------------------------------------------------------------------------------------------------------------------------------------------------------------------------------|------------------------------------------------------------------------------------------------------------------------------------------------------------------------------------------------------------------------------------------------------------------------------|----------------------------------------------------------------------------------------------------------------------------------------------------------------------------------------------------------------------------------------------------------------------------|
| <b>감사한인교회</b><br>담임목사 : 김병길<br>주일 1부예배 :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br>평일 4부예배 : 오전 11:30<br>평일 5부예배 : 오전 7:30<br>세례 기도회 : 오전 11:30<br>www.chapchhanchurch.com<br>Tel. (213) 487-0881, Fax. (213) 487-0882<br>5899 Knoll Ave, Torrance, CA 90505    | <b>나성순복음교회</b><br>담임목사 : 권유철<br>주일 1부예배 :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br>평일 4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 오전 11:30<br>세례 기도회 : 오전 11:30<br>www.nasungbiblechurch.com<br>Tel. (323) 227-1486, Fax. (323) 227-0778<br>7790 N. Edgemoor St., L.A., CA 90027 | <b>나성영락교회</b><br>담임목사 : 김경진<br>주일 1부예배 :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br>평일 4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 오전 11:30<br>세례 기도회 : 오전 11:30<br>www.youngguk.com<br>7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77<br>Tel. (323) 227-1486, Fax. (323) 227-0778        | <b>나성제일교회</b><br>담임목사 : 김문수<br>주일 1부예배 :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br>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br>평일 4부예배 : 오전 7:30<br>세례 기도회 : 오전 8:30-9:30<br>www.nasungjeil.com<br>215 S. Main St., L.A., CA 90004                                                                            | <b>나침반교회</b><br>담임목사 : 권경현<br>주일 1부예배 :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br>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br>평일 4부예배 : 오전 7:30<br>세례 기도회 : 오전 11:30<br>www.nachimban.com<br>Tel. (323) 227-0881, Fax. (323) 227-0882<br>215 S. Main St., L.A., CA 90004                                                                                |                                                                                                                                                                                                                                                                              |                                                                                                                                                                                                                                                                            |
| <b>남가주돈돈교회</b><br>담임목사 : 김현민<br>주일 1부예배 :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10:30<br>주일 3부예배 : 오전 12:30<br>주일 4부예배 : 오전 10:30<br>주일 5부예배 : 오전 10:30<br>세례 기도회 : 오전 7:30<br>www.dondondon.com<br>Tel. (213) 487-0778, Fax. (213) 487-0779<br>1642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 <b>남가주사망교회</b><br>담임목사 : 조장수<br>주일 1부예배 :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6부예배 : 오전 11:30<br>www.namgajusang.com<br>Tel. (714) 772-7777, Fax. (714) 772-7777<br>1111 N. Broadway St., Anaheim, CA 92801   | <b>대동장로교회</b><br>담임목사 : 권영국<br>주일 1부예배 :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10:30<br>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6부예배 : 오전 11:30<br>www.dadong.com<br>Tel. (213) 772-2244, Fax. (213) 772-2228<br>15011 E. Figueroa St., L.A., CA 90048          | <b>동문교회</b><br>담임목사 : 김광삼<br>주일 1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6:30<br>주일 3부예배 : 오전 8:30<br>주일 4부예배 : 오전 8:30<br>www.dongmun.com<br>Tel. (213) 487-0881, Fax. (213) 487-0882<br>15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 <b>다이스포라선교회</b><br>Korean Daughters Mission Center<br>대표 : 권영자 목사<br>주일 1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6부예배 : 오전 11:30<br>www.daisporachurch.com<br>Tel. (213) 487-0881, Fax. (213) 487-0882<br>15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 <b>미주양곡교회</b><br>담임목사 : 차용택<br>주일 1부예배 :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br>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6부예배 : 오전 11:30<br>www.mijuyangguk.com<br>Tel. (213) 487-0881, Fax. (213) 487-0882<br>215 S. Main St., L.A., CA 90004         | <b>미주평안교회</b><br>담임목사 : 임승진<br>주일 1부예배 :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br>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6부예배 : 오전 11:30<br>www.mijupyeongan.com<br>Tel. (213) 487-0881, Fax. (213) 487-0882<br>215 S. Main St., L.A., CA 90004      |
| <b>빛과 소금의 교회</b><br>담임목사 : 이경현<br>주일 1부예배 :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br>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6부예배 : 오전 11:30<br>www.bithesun.com<br>Tel. (213) 487-0881, Fax. (213) 487-0882<br>215 S. Main St., L.A., CA 90004        | <b>메달한인교회</b><br>담임목사 : 김한효<br>주일 1부예배 :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6부예배 : 오전 11:30<br>www.medal.com<br>Tel. (323) 227-1486, Fax. (323) 227-0778<br>7790 N. Edgemoor St., L.A., CA 90027             | <b>복음장로교회</b><br>담임목사 : 김성택<br>주일 1부예배 :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10:30<br>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6부예배 : 오전 11:30<br>www.bokum.com<br>Tel. (213) 487-0881, Fax. (213) 487-0882<br>15011 E. Figueroa St., L.A., CA 90048           | <b>세계소망교회</b><br>담임목사 : 오세훈<br>주일 1부예배 :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10:30<br>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6부예배 : 오전 11:30<br>www.segyesomang.com<br>Tel. (213) 487-0881, Fax. (213) 487-0882<br>15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 <b>요셉선교회</b><br>담임목사 : 정성호<br>주일 1부예배 :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10:30<br>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6부예배 : 오전 11:30<br>www.yoseph.com<br>Tel. (213) 487-0881, Fax. (213) 487-0882<br>15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 <b>얼마인침례교회</b><br>담임목사 : 박경호<br>주일 1부예배 :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6부예배 : 오전 11:30<br>www.almayin.com<br>Tel. (213) 487-0881, Fax. (213) 487-0882<br>15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 <b>침례크리스천교회</b><br>담임목사 : 임규서<br>주일 1부예배 :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10:30<br>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6부예배 : 오전 11:30<br>www.chmcc.com<br>Tel. (213) 487-0881, Fax. (213) 487-0882<br>15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
| <b>은혜한인교회</b><br>담임목사 : 한기홍<br>주일 1부예배 :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6부예배 : 오전 11:30<br>www.eunghan.com<br>Tel. (714) 487-0881, Fax. (714) 487-0882<br>15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 <b>주님새문교회</b><br>담임목사 : 박성규<br>주일 1부예배 :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10:30<br>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6부예배 : 오전 11:30<br>www.junimsaemun.com<br>Tel. (213) 487-0881, Fax. (213) 487-0882<br>15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 <b>주님의영광교회</b><br>담임목사 : 신승훈<br>주일 1부예배 :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10:30<br>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6부예배 : 오전 11:30<br>www.junimyeong.com<br>Tel. (213) 487-0881, Fax. (213) 487-0882<br>15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 <b>종은마을교회</b><br>담임목사 : 신현규<br>주일 1부예배 :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6부예배 : 오전 11:30<br>www.jongun.com<br>Tel. (714) 487-0881, Fax. (714) 487-0882<br>15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 <b>코니스문 교회</b><br>담임목사 : 이종용<br>주일 1부예배 :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10:30<br>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6부예배 : 오전 11:30<br>www.conismun.com<br>Tel. (213) 487-0881, Fax. (213) 487-0882<br>15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 <b>토렌스조은교회</b><br>담임목사 : 김바울<br>주일 1부예배 :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 오전 10:30<br>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 오전 11:30<br>주일 6부예배 : 오전 11:30<br>www.torrence.com<br>Tel. (213) 487-0881, Fax. (213) 487-0882<br>15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br/>후원교회를 찾습니다</b><br>L.A.: Tel. (323) 666-0000<br>Fax. (323) 666-0000<br>N.Y.: Tel. (212) 666-0000<br>Fax. (212) 666-0000<br>www.mjck.com                                                                                                                 |



헝가리 부다페스트

기도와 사랑, 또는 물질로 선교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샬롬! 안녕하십니까? 건강하며 평안하시지요? 기도와 사랑, 또는 물질로 선교후원해주시는 큰 힘이 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 헌신을... 주께서 저희에게 미션으로 맡겨주셨으니,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마24:45)이 되도록 겸허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소식과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1)제 아버지의 소천으로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 한 달 간 어머니 곁에서 매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7월 15일 헝가리로 돌아가며, 7월 18일부터 한 주간, "양상블(함주단) 단기선교"가 있게 됩니다.

2)토요학교(영어)의 종업식을 앞두고, 동물원에 가서 하나님의 창조를 체험하였습니다(19명,

6/11일). 로베르트 선생이 영어수업 후 성경공부를 시작하였고, 문맹 집시아이 브리기를 가르칩니다.

3)"소금과 빛 개혁교회"(주일)와, "거리교회"(월: 허타르 역/화:남부역)를 통해 주께 예배하며 급식으로 섬길 때, 주께 나아와 영혼구원 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동역자들이 예수님 제자로서 헌신하며 또 다른 충성된 자를 낳게 하소서! 피테르 전도사(주일학교), 임레& 일디코 전도사 부부, 노베르트, 원선생님, 크리스티나, 에스테르, 지니, 산도르, 클라라, 주잔나...

4)공영주택가 "살라쉬 거리"와, 슬럼가 "회쉬 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소서! 매주 금요일마다 두 가정씩, 특별 저녁식사에 초대하여 격려하며, 가정교회 모형을 보여줍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고전16:19).



5)요즘 정세가, '종교통합 프로그램(globalism)' 이름하에 동성애 합법화 등으로 점점 신앙탄압을 해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가장 절실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입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계7:13-14).

다음에 소식드릴 때까지, 기도, 기도,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Lord! Mercy on us!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서명희 드림 mylovehungary@hanmail.net

필리핀

2016년 7월 6일은 필리핀 무슬림의 큰 명절인 하리라야입니다. 이슬람교의 무슬림들은 매년 한



달간 급식을 하는데, 할말간의 급식을 마치고 맞는 새날이 바로 하리라야이며 마지막 예배 후에 큰 잔치를 합니다. 여기 사진은 제가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이슬람: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하며 알라를 단일신으로 믿는 종교이다. △무슬림: 이슬람 종교를 믿는 신자. 지금 세계는 수니파와 사이파의 관계가 좋지 않다. △수니파: 이슬람의 최대 종파로 전체 무슬림의 80-90%가 속해 있다. △시아파: 전체 무슬림의 10-20%가 속해 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세력 중 기독교에 대적하는 가장 큰 세력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한 이슬람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닌 이웃이 아닙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이슬람은 북음에서 소외된 우리의 가장 큰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는

기꺼이 이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이슬람은 폭발적인 인구 성장과 함께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기독교를 제외하고 세계 선교를 주장하는 유일한 종교이며 기독교와 싸워 세계의 막대한 지역을 정복한 유일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부

분 교회들은 무슬림 선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에 대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다른 종교나 지역으로 선교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곤 합니다.

필리핀의 남부 민다나오 섬에는 13개의 무슬림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 파우숙 무슬림 종족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파우숙 종족은 필리핀에서 이슬람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종족이며, 100만 명가량 됩니다. 아부사얌 과격 무슬림 게릴라들은 제가 사역하는 파우숙 무슬림 종족의 그룹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다가가도 그들은 우리 부부를 반갑게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복음

은 전해야 하기에 21년 동안 이곳을 지키며 이 땅의 이들 파우숙 무슬림 종족이 구원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정운 선교사 ohgongtak@hanmail.net

한국내 주요 선교단체들 리더 대거 교체

변화 새바람...현장 경험 풍부, 국제협력도 활발

지난해부터 국내 주요 선교단체의 리더들이 대거 교체되고 있다. 대부분 선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물인 데다 국제단체와의 협력도 활발해 한국 선교를 새롭게 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선교 3세대를 맞고 있는 한국 선교계의 기성세대 속에서 건강한 선교사를 모집, 배출하고 선교의 모관인 지역교회와 유기적 관계를 지속하는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선교의 중심축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국제적 리더로서의 역량도 넓히게 된다.

국내 선교단체 리더십 교체는 지난해부터 본격화 됐다. 일본복음선교회(JEM)는 지난해 10월 이수구 목사가 대표로 취임했다. JEM은 1991년 시작돼 현재 9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일본선교훈련원과 국내 동원사역, 그리고 일본 현지 교회개척과 현지교회 협력 등을 주 사역으로 하고 있다. 컴미션(국제대표 이재환)도 지난해 조슈아 선교사를 한국지부 대표로 선임했다. 2000년 설립된 컴미션은 미국 국제본부와 비롯해 한국과 프랑스 호주 캐나다에 지부를 두고 있다.

리더십 교체는 올해 가장 활발하다. 한국오엠선교회 최현미 대표가 지난 2월 3일 취임했다. 그는 국내 선교단체로는 드물게 여성 리더십이기도 하다. 선교한국대회를 통해 선교사 소명을 확인한 뒤 평신도 단기선교사로 시작해 루마니아의 개척팀 일원으로 본격적인 선교 활

동을 감당했다. 영국과 유럽, 중동 지역에서 선교사로도 활동했다.

GBT성경번역선교회(GBT) 윤우가 선교사는 지난 1일 대표를 맡았다. 윤 선교사는 1990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지금까지 성경번역 사역에 힘써왔다. 그는 국민일보와 전파문화에서 "GBT는 위클리프국제연대(WGA)가 1999년에 결정한 '2025년까지 모든 언어(7000여개 추정)로 성경 번역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성경 66권 전체를 번역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구약 성경 전체가 번역된 언어는 556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윤 선교사는 "GBT는 WGA의 지부가 아니라 협력 관계에 있다"며 "GBT 소속 한국 선교사들은 성경번역 사역뿐 아니라 교회 사역도 능히 현지 교회와 협력하면서 성경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터네셔널코리아(인터네브)는 다음 달 1일 조샘 선교사가 대표로 취임한다. 조 선교사는 대학시절 한국기독교학생회(IVF) 코디네이터로 봉사했으며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경영전문대학원(MBA)을 거쳐 박사학위(조직이론)를 취득했다. 2000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비즈니스 선교의 한 분야인 BAM(Business As Mission)에서 활동했다. 그는 "교회와의 관계를 깊게 하고 제자도와 사역훈련, 선교전략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선교사는 "선교회의 리더는 성령님이라고 믿는다"며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 하나 됨을 위해 성령님만 의지하겠다"고 덧붙였다.

HOPE선교회(HOPE)는 12일 경기도 포천시 배어스타운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대표를 선출한다. 현재 주영찬, 이기쁨 선교사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번에 선출되는 대표는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현 대표인 김태정 목사는 "HOPE는 팀사역, 현장 중심 사역이 특징이기에 리더가 바뀐다고 정책과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며 "이번에 선출되는 리더는 10년 이상의 현장 경험과 5인 이상의 추천, 10개 항목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만큼 모두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내 자생선교단체 중 하나인 GP선교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진용삼 선교사가 한국 대표를 맡는다. 진 선교사는 서남아시아 A국에서 선교활동을 펼쳐왔다.

국내 교단선교부와 선교단체 협의체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도 사무총장 임기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인선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KWMA는 사무총장 선출을 위해 따로 추천을 받지 않고 이른바 '서치 커미티(search committee)'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참신한 인물을 직접 '구인'하기로 했다. 커미티는 7인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KWMA 관계자는 "신임 사무총장 후보는 국제관계와 성품, 선교 경험, 선교의 열매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들레헴 한국문화원 땅 소유문서 확보

자치정부서 공식 서류 전달...건물 2010년 착공



베들레헴 한국문화원 땅 소유문서 확보 기사의 사진팔레스타인 베들레헴의 한국문화원 전경. 이스라엘과 중동 선교의 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 한국문화원(사진)을 건립 중인 강태운 선교사는 최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대지 소유 문서를 받았다고 11일 전했다. 한국문화원은 2009년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하는 공식 서류는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에 소유를 확정하는 땅문서가 발행됨에 따라 이스라엘과 중

동 선교를 위한 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한국문화원은 2010년 착공을 시작해 현재 건물의 80%가 완성됐다.

한국문화원이 들어선 곳은 베들레헴 벤사홀 시로 구역성경 루터교회에 등장하는 '보아스의 뜰'이자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한국문화원은 1485㎡(450평) 크기의 대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축 중이다. 문화원 앞길은 2009년 벤사홀 시로부터 '한·팔 우정의 길'로도 지정됐다.

강 선교사는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외국인으로서 땅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정부가 이 땅을 거쳐 가면서 소유 관계도 복잡해졌다"며 "한국문화원이 있는 땅은 오스만제국과 영국의 위임 통치,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점령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까지 역사가 서려있는 장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타보"라는 정식 땅문서는 건축 허가 이후 7년 만에 받은 것"이라며 "이제 한국문화원이 한국교회의 소유가 된 이상 이스라엘 중동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문화원은 현재 유치원과 한국어 교실, K-Pop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연말부터는 태권도장도 문을 연다. 또 비상 시적으로 한방의료 사역과 한국문화 공연도 개최한다.

강 선교사는 "이방 여인이었던 루터립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 쓰임 받기를 기도한다"며 "한국교회가 성경의 땅에서 당당하게 대지를 소유하고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PRINTING & PROMOTION

프린팅 & 프로모션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판촉볼펜



주보/헌금봉투



교회책자



단체 T셔츠



책 만들어 드립니다.



각종 상패



타올



머그컵

교회/매장/기타단체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BOOKS KOREANA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월~토: 오전 9:30~오후 8:00

- 기독교서적
- 기독교용품
- 일반서적
- 서예용품 전문
- 2016년 달력제작



한국으로 택배



미국내 택배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



## 선교 편지

### 아르헨티나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님!

먼저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는, 이상기온으로 작년보다 훨씬 빠른 추위가 다가왔습니다. 의류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추위가 빨리 오는 것이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또한 빈민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위로 인하여 많은 고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극단적인 상황엔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에 많은 걱정이 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주 예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모든 동역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한 해를 귀한 안식년 기간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시고, 지난 19년의 사역들과 삶을 뒤돌아보면서 실수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감사한 많은 일들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생 후반전의 사역과 삶을 위하여 재충전하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

다. 비전과 열정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마치 고장 난 자동차로 계속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로를 계속했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귀중함을 느낍니다. 안식년의 기간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과 먼저 걸어가신 신앙과 선교의 선배 되시는 귀한 분들의 경험을 배우면서 저희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의 격려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가정과 아르헨티나에서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소식을 나누길 원합니다.

#### 한인 세계 선교대회

한인세계선교대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4년마다 모이는 선교대회가 그동안 시카고 근교에서 이루어지다가 올해는 캘리포니아 아주사 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24000명이 넘는 한인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듣고 감동과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한인 선교사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으며, 한국 교회의 선교의 열기가 식었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하여 지난 2000년의 선교역사의 주인 되시며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 속에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았고, 돈의 힘으로도 되지 않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의 역사에 부름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사

실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저희들은 이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여 묵묵히 따라가려고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아주사 선교대회 후속 모임

아주사 선교대회를 마치고 후속 모임으로 25년 이상 된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성흥 선교사는 이제 겨우 20년 된 선교사이지만, 풀러선교대학원 선교학박사(D. Miss)과정 학생 신분으로 초청을 받아 함께 앞으로 25년을 바라보며 한인 선교사들이 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하여 고민하며 전략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았던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한국 교회와 해외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그리고 24000여명의 한인선교사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회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25년 이상 된 시니어 선교사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역을 뛰어 넘어, 교단을 뛰어 넘어, 개인의 지역을 뛰어 넘어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범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사역만을 주장하고 자신의 교회와 교단만을 주장하면서 사역하시렵니까?”

정말 저의 마음을 망치로 치는 것과 같은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 쌓은 현장의 경험과 풀러선교대학원을 통하여 학문적으로 정리된 선교의 기본적은 노하우들을 글로벌 리더십으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선교 지도자의 자세인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

한 일에 사용해 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풀러선교대학원 선교학박사과정

풀러선교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3년의 과정(혹은 4년)중 이제 2학기를 마치고 3-4학기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20년 된 선교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교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책임 또한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과정들을 잘 진행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디나목회신학원

디나목회신학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전달시키는 선교의 전략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치고 열정이 식어버린 현지인 목회자들이 디나목회신학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메말랐던 눈에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목회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아르헨티나 북부지역 살파주(Salta)에서 15가정의 신임생 목회자들이 모여서 제1차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고, 다음 세미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이번 7월 29-31일까지 제2차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함께 해주셔서 목회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은혜를 부여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분들이 건강해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분들이 선교에 헌신할 때 현지인 교회가 세계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전체 12회의 세미나를 2019년까지 계획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목회자들이 참석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 “나사렛 예수의 집” 보육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다른 해보다 추위가 일찍 왔고, 더 추운 날씨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매트리스와 담요가 너무 낡고 또 모자라서 새로 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오다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켈트웬교회에서 귀한 현금 2천불 보내오셨습니다. 우선 이 현금으로 구할 수 있는 이불과 담요 등을 구해서 보육원 어린이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통하여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1)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2)디나목회신학원 제2차 살파주 세미나가 7월 29-31일에 있습니다. 참석하는 15가정의 목회자 부와 감사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은혜의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3)라틴아메리카 퍼스펙티브스 세미나가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흥 선교사가 현지인 선교지도자들과 준비위원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파라과이, 브라질, 볼

리비라, 페루, 우루과이 및 칠레에서 참석하시는 분들과, 에콰도르, 콜롬비아 및 중미에서부터 참석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계획되는 이번 퍼스펙티브스 세미나를 통하여 중남미 현지인 교회와 지도자들 사이에 하나님의 선교운동이 일어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4)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년을 잘 마치고 인생 후반기 선교사역을 다시금 출발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과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5)풀러선교대학원에서 선교학박사(D.Miss) 과정을 통하여 선교 현장에 꼭 필요한 연구를 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6)자녀들: 신애, 지애, 원진이가 선교사 가정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고, 특히 신애와 지애는 미국에서 이번 가을학기부터 대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밝고 비전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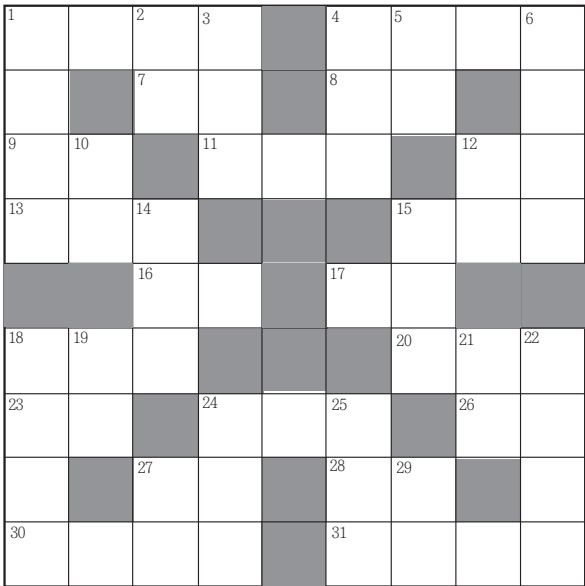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헌신하고 함께 사역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선교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과 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겨울을 지내며...

박성흥-정명희 (신애, 지애, 원진) 선교사 드림  
seminariodina@gmail.com  
dinajeong@naver.com

## 십자말 • Cross Word (132)

###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 <가로 푸는 열쇠>

1.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가 되게 하리라(왕하19:25).
4. 에스라 때에 유대인의 한 가족의 두령으로 저의 자손 666인이 스룹바벨을 따라 예루살렘에 귀환하였다(스2:13).
7. 아직 알지 못함(명).
8. 조목이 우가짐(창41:5).
9. 둘째 복음서의 저자.
11. 율행이가 자라면...(계16:13).
12. 주로 문서를 맡아 다루는 업무(예9:3).
13. 디손의 자녀(대상1:41).
15. 화본과에 속하는 1년생 풀. 밀과 비슷하나 이삭이 난 뒤에야 구별된다(마13:25).
16. 폭이 매우 좁고 작은 개울(왕상18:32).
17. 엽신여겨 봄. 낮추어 봄(욥12:21).
18. 속죄일에 염소 두 마리를 제비 뽑아 한 마리는 여호와께, 다른 한 마리는 ○○○에게 드렸음(16:10).
20. 쇠비름과의 1년생. 여름에서 가을까지 각색 꽃이 필(명).
23. 하늘 아래의 땅(신4:39).
24. 내소(內所)와 외소(왕상6:29).
26. 주먹 안 수중(잠30:4).
27. 휘쓸어 없애 버림(사28:17).
28. 소라처럼 비틀리게 고랑이 진 물건(왕상6:8).
30. 네가 먹어서 ○○○○ 아름다운 짐을 짓고...(신8:12).
31. 무화과로 만든 떡(대상12:40).

#### <세로 푸는 열쇠>

1.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에 이르라...(렘21:7).
2. 많이 모여 쌓인 큰 덩어리(대하31:8).
3. 몸을 펴고 팔 다리를 뻗는 것(마6:7).
4. 사물의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시58:5).
5. 서울, 큰 도시(애9:6).
6. 고마운 마음을 이루 다 나타낼 길이 없음(렘24:3).
10. 블레셋의 5개 중요도시 중의 하나. 견고한 요새지(수11:22).
12. 아브라함의 이복누이로 후에 아내가 되었다(창20:2).
14. 주로 어린 학생들이 책, 학용품을 넣고 양어깨에 메고 다니는 가방(명).
15. 가시로 만든 채찍(렘26:14).
18. 다윗의 30용사 중 엘리벨렛의 부친이다(삼하23:34).
19. 네 손가락(렘52:21).
21. 사람의 시체(왕상19:35).
22. 그림의 떡(고사성어).
24. 임금의 사유재산을 두던 공간(스 7:20).
25. 대한민국 애국가 2절, 남산위에 저 ○○○.
27. 귀를 자극하여 청각을 일으키는 물리적 대상. 음(音)(렘7:34).
29. 서로 원한을 풀어 잘 지내게 함(마5:25).

### 십자말 정답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 2017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찬양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7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하고자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록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6년 9월 30일 / 광고 접수마감 2016년 9월 30일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3) 목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아내는 목(Neck)의 역할을 잘 하는 지혜로운 사모가 되어야 한다. 머리는 목의 도움이 없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므로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고, 가정의 머리인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는 'Yes!'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No!' 하도록 목의 역할을 잘하면 된다. 목의 역할을 지혜롭게 잘하기 위해서 사모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간구하면서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아빠가 잘못했는데도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세요" 하고 물어왔다. 그때 차분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더니 "엄마는 과연 일등엄마야"하고 해서 "고마워, 하지만 엄마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위대한 분이란다"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렸다.

5) 남편의 단점을 자주 지적하지 말고 그의 장점을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자.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

6) 다른 목사님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라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말이 있듯이 남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있을 때 필자는 목사님께 좀 더 도전을 드리기 위해 이웃 교회의 목사님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다. 그랬더니 한번은 "여보, 그 목사가 그렇게 좋으면 그 교회에 가서 등록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 교회로 나가시오" 하는 것이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이희숙 사모

## 최고의 에제르가 된다 (6)

우리가 살다보면 많은 소리들이 들려온다. 마귀소리, 인간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온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 사모는 말씀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남편의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사모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저지른 실수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사모가 되자. 남편의 실수를 오래 기억하는 것은 행복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미련한 아내는 구정물을 휘저어서 가정을 파괴한다.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남편의 실수를 흡수하는 잔잔한 호수와 같아서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가정을 세워나간다.

4) 이기려고 하지 말라

남편은 경쟁의 대상도 원수도 아니다.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손바닥 한쪽이 피하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남편 목사가 만일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해서 사모가 도움 일이 하나도 없다면 사모는 '에제르'로서의 가치가 없는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베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부족한 단점을 사모가 보완할 수 있다면 '에제르'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감사해야 한다. 사모가 남편의 단점을 자주 지적하면 남편이 주눅이 들어 기를 못 펴고 자신감이 없는 목사가 된다. 그러나 그의 장점을 들어서 긍정적으로 칭찬을 많이 해주면 용기가 나서 더 힘차게 될 수 있게 된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남편 목사가 좌절하고 있을 때 강력한 격려가 필요하다. '에제르'로서 남편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어 다시 될 수 있게끔 응원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만일 사모가 남편 목사에게 "그것 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평소에 기도들

다음부터는 절대로 다른 목사님과 비교하지 않았다. 이것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형제간에도 자녀들은 비교하는 것에 화를 내고 기분 나빠 한다.

부부간에 잘 지내던 한 친구가 동창회 모임에 나가서 친구가 "남편이 회사 사장이다. 돈을 잘 벌며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라고 자랑하는 말을 듣고 집에 왔다. 그러자 그동안 관찮게 보이던 남편이 동창 친구의 남편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무능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서 자기 자신을 불행한 여자로 판정한 후 결국 이혼했다. 목사도 마찬가지다 이웃의 큰 교회 목사님과 자주 비교하면 남편의 목회 의욕을 꺾어 놓고 좌절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

7) 아내는 신성한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임을 명심하라 하나님께서 우주를 경영하시는 단위가

남편 목사가 만일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해서 사모가 도움 일이 하나도 없다면 사모는 '에제르'로서의 가치가 없는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베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부족한 단점을 사모가 보완할 수 있다면 '에제르'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감사해야 한다....

않는다. 남편 목사가 기분이 언짢을 때는 논쟁을 피하고 아무리 사모가 옳다고 생각해도 우선은 무조건 "죄송해요"하고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지혜롭게 논쟁을 피한다. 만일 사모가 남편을 이겼다 해도 이긴 것이 못된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센 남자가 자신이 졌다고 생각하면 분해서 혈압이 오르고 입맛이 없어지고 또한 기도도 안되며 말씀을 묵상해도 영감도 떠오르지 않는다. 얼마나 영적으로 손해인가. 부부간의 자존심 싸움은 암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

또한 부부싸움은 연장전을 하지 말라. 분이나 화를 침상에 들기 전에 다 풀어야 한다.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사랑은 용서하는 수준까지 가야 사랑이다. "그럴 수 있어?"하며 도전적으로 나오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하면서 이해하며 용서하도록 하자.

영어로 이해한다는 단어 Understand는 Under와 Stand가 합쳐진 말로 '상대방의 밑에 내려가 서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해하고 용서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딸이 한번은 "왜 엄마는

열심히 하지 않으니 사탄이 난리를 치잖아요. 아이구 답답해서 못살겠네" 하며 호들갑을 떠다보면 절대로 승리를 가져오는데 도움을 주는 '에제르' 응원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모단상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할 때 20 에이커의 큰 성전 부지를 사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자 교인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 부부는 얼마나 낙심과 좌절을 했는지 모른다. 그때 필자는 '그렇지, 목회자 위기에 처했을 때 사모가 '에제르' 응원군의 역할을 잘 해서 약한 원수인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목사님을 도와야지' 하면서 금식하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그리고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이 하나님 편에 딱 붙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떠난다 해도 저는 반드시 목사님 곁에서 끝까지 도와 드릴 테니 힘내세요' 하였다. 말로 목사님을 격려하고 개인적으로는 강력한 기도로 그를 응원하는 '에제르'의 역할을 감당하여 목회의 위기에서 사탄의

가정이다. 목회자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하면 나라가 건강해지고 나아가서 세계가 건강해진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간이 교육되고 평화로운 이웃이 형성되며 자유와 사랑의 씨가 뿌려지도록 계획하셨다. 아내는 이 거룩한 우주 계획의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진 것이다.

8)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자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 교회 문제의 원인은 90퍼센트가 목사에게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책임은 사모에게도 주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남편의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 사모의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지혜로운 내조가 필요한데 '에제르'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사모가 돕는 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모는 목회에 도움이 되는 좋은 아이디어나 정보들을 준비해서 목사님께 전하면 좋다. 사모의 행동 여하에 따라 욕의 아내처럼 남편에게 절망과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마틴 루터의 사모처럼 희망과 용기를 줄 수도 있다.

heesook1939@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시험을 이기는 믿음(마15:21-28)찬506장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긴 가나안 여인의 본을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려는 길에는 시험이 따라옵니다. 일찍이 사도가 말한 대로 시험당할 때 정로임을 인정하며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고전1:13). 둘째, 어떻게 이겼습니까? 첫째, 그녀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귀신들

린 땀을 흘리는 온갖 심적 고통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나아가는 결단으로 해결했습니다(22). 둘째, 그녀는 주님의 무관심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23-24). 셋째, 그녀는 주님의 차별하시는 모멸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28). 점차적으로 당하는 시험을 이긴 비결은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사모합니다.

### 화 치료의 주님(마15:29-31)찬495장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 주님의 치료의 사역은 세 가지 특징을 나타냅니다. 첫째, 그는 모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30). 대상이 누구든지 차별 없이 데려오기만 하면 모두 치료했습니다.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지고 그에게 오면 반드시 짐을 얻습니다. 둘째, 그의 발아래 앓을 때 고치셨습니다(30). 그냥 모든 병이 치료되라고 명하지 않으시고 구체

적이고 인격적이셨습니다. 택함 받은 자만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임을 암시합니다. 셋째,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31).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주, 구원주, 섭리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임재하신 성령님께 영광이 돌아가심을 포함합니다. 우리시대의 치료도 이런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앉습니다.

### 수 주님의 풍성한 은혜(마15:32-39)찬82장

주님이 오신 목적인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려는 목적이 여기 다시 들어났습니다(요10:10). 그는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첫째, 그는 풍성한 긍휼을 가지셨습니다. 기적의 음식을 먹고도 떠나갈 그들 인줄 아시고도 이 풍성한 식탁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제한된 부류만 해당되지만 높이고 깊이와 넓이는 무한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얼마든지 담대하

게 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있는 것 가지고 일하시는 풍성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부족하다고 낙심할 환경도 그의 손에 들리면 기이한 능력이 일어납니다. 셋째, 풍성히 남기십니다.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도 온갖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 부요를 누리게 성도가 됩니다.

### 목 시대의 표적(마16:1-4)찬493장

표적은 기적과 다릅니다. 기적은 기이한 초자연적 현상으로 제한되나 표적은 거기에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은 구속과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주님은 바른 표적을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첫째, 유대인은 탐욕의 동기로 표적을 구했습니다. 수단을 목적화 하는 시대는 정말 신실성을 무시하고 표적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합니다. 둘째,

알지 못하는 표적을 좋아하는 자는 혼돈과 공허 속에 떨어집니다. 분명한 계시인 기록된 말씀에서 떨어진 자는 흑암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사망의 계곡에서 유리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셋째, 요나의 표적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것만이 모든 방면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 금 외식을 경계하라(마16:5-12)찬427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계하신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첫째, 경건은 이용한 외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외식된 경건은 자기 탐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적 의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상의 적응을 이용한 외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속주의자에 속한 사

두개인의 교훈은 세상과 타협하여 자기 배를 만족시키는 자유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거짓이 가득 차 있습니다. 셋째, 주님의 교훈인 성경에 착념할 때 외식을 이깁니다. 외식은 부패성의 찬란한 거짓 표현이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실한 말씀인 성경에 착념하여 진리로 외식을 이깁시다.

### 토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마16:13-20)찬408장

주님은 교회를 무엇으로 정의하십니까?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를 바로 아는 것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둘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자기 소유를 빼앗긴 사탄은 온갖 음부의 권세로 교회를 공격하나 결코 이기지 못하고 단지 발꿈치에 상처만 입힙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그 자신이 부서집니다. 어둠의 권세가 득실대

는 세상에서 참 교회의 권세를 쫓아갑니다. 셋째, 교회만이 천국 열쇠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천국열쇠란 구원을 받게 하는 길을 가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요20:23). 이 말은 교회를 통해 전도돼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 온전한 구원으로 자랄 수 있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 교회만이 참 구원을 이룹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                                                                                                                                                                                                                                                          |                                                                                                                                                                                                                |                                                                                                                                                                                                                                                                              |                                                                                                                                                                                                                                   |                                                                                                                                                                                                                             |                                                                                                                                                                                                                                |                                                                                                                                                                                                                                                          |
|----------------------------------------------------------------------------------------------------------------------------------------------------------------------------------------------------------------------------------------------------------|----------------------------------------------------------------------------------------------------------------------------------------------------------------------------------------------------------------|------------------------------------------------------------------------------------------------------------------------------------------------------------------------------------------------------------------------------------------------------------------------------|-----------------------------------------------------------------------------------------------------------------------------------------------------------------------------------------------------------------------------------|-----------------------------------------------------------------------------------------------------------------------------------------------------------------------------------------------------------------------------|--------------------------------------------------------------------------------------------------------------------------------------------------------------------------------------------------------------------------------|----------------------------------------------------------------------------------------------------------------------------------------------------------------------------------------------------------------------------------------------------------|
| <b>금관교회</b><br>담임목사: 김경민<br>주일1부예배: 오전 8:3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7:30<br>Tel: (82)2-558-0191, Fax: (82)2-558-0778<br>서울시 용문구 용문동 540-4(02-558-0778)                                                                      | <b>든든한교회</b><br>담임목사: 장영희<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7:00<br>주일5부예배: 오후 8:00<br>Tel: (02)1677-6383-6, Fax: (02)1677-6382<br>(97)410-6391 (02) 고당시 용문동구 용문동 1870-1 | <b>로마한인교회</b><br>담임목사: 함병우<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후 2:00<br>주일4부예배: 오후 8:00<br>주일5부예배: 오후 9:00<br>주일6부예배: 오후 10:00(제복)<br>Tel: 33-09-627-3255, 33-09-628-338-3728<br>33-09-642-0877 FAX: 33-09-642-0877<br>USA DES GORRELL 32-08 0977 ROMA, ITALY | <b>사이먼교회</b><br>담임목사: 조강석<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2:30<br>주일5부예배: 오후 8:00<br>주일6부예배: 오후 10:00(제복)<br>Tel: (02)12-482-1908, Fax: (02)12-482-1907<br>서울시 용문구 용문동 170-1(02-482-1907) | <b>성문교회</b><br>담임목사: 황정식<br>주일1부예배: 오전 8:00<br>주일2부예배: 오전 11:30<br>주일3부예배: 오전 3:30<br>주일4부예배: 오후 5:30<br>주일5부예배: 오후 8:30<br>Tel: (02)12-482-1911-1, Fax: (02)12-482-1914<br>서울시 용문구 용문동 170-1(02-482-1914)                  | <b>성실교회</b><br>담임목사: 김영복<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3:00<br>주일5부예배: 오후 8:00<br>www.sungshil.or.kr<br>Tel: (02)12-482-1911, Fax: (02)12-482-1914<br>서울시 용문구 용문동 170-1(02-482-1914) | <b>성일교회</b><br>담임목사: 김경곤<br>주일1부예배: 오전 8:3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3:00<br>주일5부예배: 오후 8:00<br>주일6부예배: 오후 9:00<br>Tel: (02)12-482-1911-1, Fax: (02)12-482-1912<br>서울시 용문구 용문동 170-1(02-482-1912)                            |
| <b>수정교회</b><br>담임목사: 조일배<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7:30<br>주일5부예배: 오후 8:30<br>Tel: (02)12-482-1911, Fax: (02)12-482-1912<br>서울시 용문구 용문동 170-1(02-482-1912)                                                 | <b>승동교회</b><br>담임목사: 박상훈<br>주일1부예배: 오전 8:30<br>주일2부예배: 오전 11:30<br>주일3부예배: 오전 1:30<br>주일4부예배: 오후 3:00<br>주일5부예배: 저녁 7:30<br>Tel: (02)12-482-1911-1, Fax: (02)12-482-1912<br>(110-482) 서울시 용문구 용문동 137번지        | <b>시온소교회</b><br>담임목사: 김성길<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2:30<br>주일5부예배: 오후 8:00(제복)<br>Tel: (02)12-482-1911, Fax: (02)12-482-1912<br>(02)12-482-1911 서울시 용문구 용문동 170-1(02-482-1912)                                                | <b>신길교회</b><br>담임목사: 이선출<br>주일1부예배: 오전 7:0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3:00<br>주일5부예배: 오후 8:00<br>Tel: (02)12-482-1911, Fax: (02)12-482-1912<br>서울시 용문구 용문동 170-1(02-482-1912)                          | <b>신천교회</b><br>담임목사: 송용원<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2:30<br>주일5부예배: 오후 8:00<br>주일6부예배: 오후 9:00<br>Tel: (02)12-482-1911, Fax: (02)12-482-1912<br>서울시 용문구 용문동 170-1(02-482-1912) | <b>신촌교회</b><br>담임목사: 박노준<br>주일1부예배: 오전 8:00<br>주일2부예배: 오전 11:30<br>주일3부예배: 오전 3:30<br>주일4부예배: 오후 5:30<br>주일5부예배: 오후 8:30<br>Tel: (02)12-482-1911, Fax: (02)12-482-1912<br>서울시 용문구 용문동 170-1(02-482-1912)                       | <b>안암 제일교회</b><br>주일1부예배: 오전 8:30<br>주일2부예배: 오전 10:0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2:00<br>주일5부예배: 오후 8:00<br>주일6부예배: 오후 9:00<br>주일7부예배: 오후 7:30<br>주일8부예배: 오후 8:30<br>Tel: (02)12-482-1911, Fax: (02)12-482-1912<br>서울시 용문구 용문동 170-1(02-482-1912) |
| <b>양곡교회</b><br>담임목사: 저용수<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1:40<br>주일4부예배: 오후 7:30<br>주일5부예배: 오후 8:30(제복)<br>주일6부예배: 오후 9:30(제복)<br>Tel: (02)12-482-1911, Fax: (02)12-482-1912<br>(04)1-3701(용문) 서울시 용문구 용문동 415<br>www.yangguk.or.kr | <b>왕성교회</b><br>담임목사: 김요나<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1:30<br>주일5부예배: 오후 8:00<br>Tel: (02)12-482-1911, Fax: (02)12-482-1912<br>서울시 용문구 용문동 1641-84 (121-0205)       | <b>장위제일교회</b><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2:00<br>주일5부예배: 오후 8:00<br>주일6부예배: 오후 9:00<br>Tel: (02)12-482-1911, Fax: (02)12-482-1912<br>(120-482) 서울시 용문구 용문동 799-42                                                               | <b>주안교회</b><br>담임목사: 주승중<br>주일1부예배: 오전 8:00<br>주일2부예배: 오전 10:30<br>주일3부예배: 오전 12:00<br>주일4부예배: 오후 2:00<br>주일5부예배: 오후 8:00<br>주일6부예배: 오후 9:00<br>Tel: (02)12-482-1911, Fax: (02)12-482-1912<br>서울시 용문구 용문동 1641-84 (121-0205)      | <b>창대교회</b><br>담임목사: 최용도<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3:00<br>주일5부예배: 오후 8:00<br>Tel: (02)12-482-1911, Fax: (02)12-482-1912<br>서울시 용문구 용문동 170-1(02-482-1912)                    | <b>청주주의교회</b><br>담임목사: 주시택<br>주일1부예배: 오전 8:00<br>주일2부예배: 오전 11:30<br>주일3부예배: 오전 2:00<br>주일4부예배: 오후 7:00<br>주일5부예배: 오후 8:30<br>주일6부예배: 오후 9:30<br>Tel: (02)12-482-1911, Fax: (02)12-482-1912<br>서울시 용문구 용문동 170-1(02-482-1912)  | <b>충신교회</b><br>담임목사: 이경호<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1:30<br>주일5부예배: 오후 8:00<br>주일6부예배: 오후 9:00<br>Tel: (02)12-482-1911, Fax: (02)12-482-1912<br>서울시 용문구 용문동 170-1(02-482-1912)                              |

## 살롬의 교육학 (1)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 대학교 교수)



## 2세 교육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들어가는 말

세상이 어렵다고 한다. 갈수록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독교의 영향력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고 한다. 왜 그럴까? 세상이 더욱 험난해져서? 사탄이 점점 더 위력을 떨치고 있기 때문에? 말세라서? 동성애, 포르노, 이슬람의 증대로 크리스천들에게 어려운 현실이 가중되기 때문에? 하기는 그것이 저지은 인생에게 주어진 숙명이기도 하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그래서 땅은 저주를 받고 인생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도록 (창3:17)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주변을 돌아보면 기쁨보다는 절망의 뉴스가 많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기아, 자연재해, 테러와 살인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는다. 동성애, 포르노, 이슬람의 증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가치관의 혼란, 그런 요인들로 인하여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크리스천들은 점점 더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키기 어려워져 갈 것이다.

얼마 전에 빌리그래함 목사의 장남인 프랭클린 목사님이 미국에서 머지않아 기독교 박해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지난 해 동성결혼식에 꽃을 팔지 않겠다고 한 바로넬 스투츠먼이라는 할머니는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아마도 이런 경향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어쩌면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왜 그런가? 우리는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진리를 지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불신앙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이 오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잠29:18) 자기 뜻대로 방자하게 행해왔기(출32:25) 때문이다.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성경적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쳐 전하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사21:25). 그런데 불행한 것은 바로 지금도 우리들의 잘못된 행위가 계속 똑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행태가 지속되는 한 기독교의 미래는 암울하며 교회의 내일은 참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대안은 무엇인가? 교회교육을 회복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진리로 거듭나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를 심어주어야 한다. 모세는 위대한 교육자였다. 하나님께서 사하시는 현장마다 그는 상징으로, 모델로 후손들을 가르치게 했다.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후손들을 교육시켰다. 그러나 불행히도 거기까지였다.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위대한 장수이긴 했지만 교육자

는 아니었다.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급속히 토착 이방 종교에 동화되어 갔다. 교육이 실패하면 그 결과는 후손들의 영적 타락을 초래한다. 지금 우리 후손들을 잘못 가르치면 그들이 장성할 때 바로 그렇게 된다.

필자는 교육이 사단과 그리스도인들과 마지막 영적 전쟁터라고 확신한다. 이미 사단은 학교에서 신앙의 힘을 무력화하는데 일정부분 성공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아주 없애는데 그의 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잘 아는바와 같이 캘리포니아에서는 201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성전환자들이 학교에서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을 발효했으며, LA 카운티 웨스트 হল리우드에서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의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로 교체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뿐인가? 사단은 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했고, 성경 읽는 시간을 없앴고, 모든 기독교적 행사나 의식을 학교에서 못하게 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오늘은 어떤가? 지금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교회가 정신차려야 한다. 모든 목회자, 기독교 교육자, 학부모들이 직시해야 한다.

교회의 현실과 우리의 과제

2013년 12월 한국에서 열린 교육목회 실천협의회 주관 교육목회 포럼에

서 한 발표자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급력과 현재 위기요소들을 고려할 때 2050년이 되면 한국교회는 300~400만명 정도로 감소할 수 있다고 보았고, 더 심각한 것은 이중 60~70%는 55세 이상 은퇴자로 구성될 것이며, 주일학교는 5~10%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2014년 예상 통합 자료에 의하면 교회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 아동부 고학년(4~6학년) 부서가 없는 교회가 43%, 저학년부서가 없는 교회가 47%, 응답교회의 절반 이상이 유치부가 없다고 응답하였고(51%), 더더구나 유아부와 영아부는 2/3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아부 없는 교회가 77%, 영아부 없는 교회는 78%).

결국 2010년부터 한국교회는 30~55세층이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국면에 진입했는데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20~30년 동안은 청/장년층의 감소와 55세 이상의 증가, 주일학교의 완전한 쇠퇴가 맞물리면서 늙고 작은 교회로 변모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이야기인가?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센터기 창조박물관을 지은 켄 헵 박사는 그의 책, "Already Gone"(이미 떠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미국 고등학교 생들이 졸업한 후 70%는 대학에 가면

다른 이들을 선교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자. 먼 훗날 이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도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어찌 그 잘못을 목회자에게만 돌릴 수 있는가?

오늘날 기독교가 유약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학부모들에게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의 초점을 신앙에 두기보다는 자녀들의 출세와 성공에 기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는데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 학원이나, 방과후 다른 교육기관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교회 예배에 나오는 시간을 아까워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자녀가 주일에 학원에서 과외공부 하는 것을 당연시여기고, 주일에는 대학 진학을 위해 지역사회 봉사 크레딧을 따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확신한다. 교회에서 지내는 자녀들의 시간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함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없이 봉사하는 수많은 젊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는 모습을 필자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자녀들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축복이며 은총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교회학교 포기는 기독교 미래 포기, 장기적 투자로 계속해야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감소세...2세 교육은 가장 강력한 선교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교회역시 이를 조용한 탈출(silent exodus; 교회 다니는 고등학생들 중 대학교에 진학하면 약 80%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통계결과)이라는 주제로 언급하기도 한다.

80년대 한국 교회의 부흥은 60년대 시작된 교회 주일학교 부흥의 결과였으며 90년대 시작된 한국교회의 쇠퇴는 2010년대 한국교회 침체의 원인이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1980년대만 하더라도 숫자상으로 장년수와 비슷한 규모였다. 그러나 1990년대 접어들면서 정체를 맞았고, 2000년대 들어 감소기를 맞게 되어서 지금은 장년숫자 대비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출석인원은 1/3수준으로 감소하고 말았다.

저출산의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목회자들이 2세 교육에 우선권을 두는 목회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일학교는 투자요, 단기간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작업이므로 계속 심는 작업을 꾸준히 하는 지리한 과정이어서 교회 리더가 2세 교육에 우선권을 두기란 매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주일학교를 선교의 개념으로 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2세 교육은 가장 강력한 선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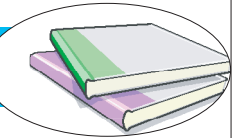
교회에서 아이들을 선교의 개념으로 바라보자. 같은 문화권에 살지만 생각과 관점이 부모님 세대와 확연하게

그러기에 우리 기성세대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후손들에게 기독교 진리가 충만한 세상을 물려주어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수 있는 환경을 그들에게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교회학교를 살림으로 가능하다. 교회학교를 살리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목회자와 학부모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교회 학교를 포기한다는 것은 곧 기독교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한 교회학교는 주일학교를 포함한 교회에서 운영/진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다.

필자는 현재 LA에 있는 기독교 대학교에서 성경에 기초한 교육학을 12년째 가르쳐오고 있으며, 한 교회에서 5년간 교회교육을 담당하는 사역을 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필자에게는 교회교육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본 칼럼을 통하여 모든 교회들이 교회교육과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유효한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hlee0414@gmail.com  
(계속)

## 새 책 소개



##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강해설교

저자 강기봉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한 강기봉 목사(뉴욕백인교회 원로)가 지난해 자신이 개척한 뉴욕백민교회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며 사도행전 강해설교집을 출판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제목의 이 책은 강기봉 목사의 동교회 담임목회 29년 만에 처음으로 낸 설교집이다.

강 목사는 “그동안 책별 설교를 18권 했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을 택한 것은 계승과 발전의 모습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라며 “흔히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공관복음은 성자 예수님, 사도행전은 성령님께



삼위 하나님의 계승과 발전 역사 보여줘

서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사도행전은 삼위 하나님의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들어가는 말에서 밝혔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땅 끝까지 이르는 사도들의 사역을 볼 수 있다. 강 목사는 본 서에서 비브리컬 신학교 Thom Taylor 교수의 강의에서 예화를 사용하고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 국민일보 연재 ‘순교열전’을 모은 바인더를 애용했다고 적었다.

책은 1장부터 28장까지 장별 순서에 따라 각 장마다 여러 편의 설교를 실었다. 특히 16장은 7편의 설교를 실었으며, 2장은 6편, 7장 5편 등이고 대부분 2~4편의 설교를 실었다. 다만 25장은 “역풍 속의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한편의 설교를 실었다.

6.25 한국전쟁 후 가난한 이웃을 보며 경제가 해결책이라는 생각에 수의사가 되려 했던 강 목사는 1968년 전주 EBF(기독교대학인회)에서 “나에게 창세기를 배운 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흔쾌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그의 인생여정에 깊은 의미와 은혜로 따라오는 부답으로 남아 결국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고 강 목사는 회고했다.

강기봉 목사는 도미후 비브리컬 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와 Th.M을 마치고 뉴욕백민교회를 개척, 29년 사역 후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비브리컬 신학교와 동부개혁신학교 신학교 이사직을 맡으며, 동부개혁신학교 교수로 히브리어와 구약학 강의를 하고 있다.

책 구입은 각 지역 서점에서 할 수 있으며 필자에게 직접 문의(kangkibong@hotmail.com)해도 된다.  
(유원정 기자)

# 2016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본 협회는 아래와 같이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1. 대 상 :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 법 :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Letter 또는 A4 size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며, 제출마감일은 2016년 10월 1일 미서부시간 오후 5시.
3. 제출처 :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4. 시 상 :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 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예정.

주최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미주복음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령크리스찬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찬 두메이(로스앤젤레스,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로스앤젤레스,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로스앤젤레스,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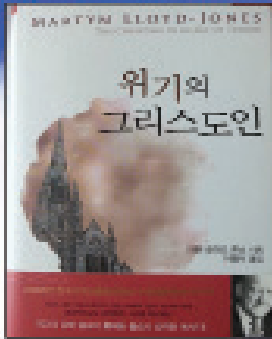
후원 기독교서점협회 \* 도서구입처

|       |              |                        |
|-------|--------------|------------------------|
| 기독교서적 | 323-737-7699 | www.koramdeo.com       |
| 두란노서원 | 213-382-5400 | www.duranno.us         |
| 말씀사   | 714-530-2211 | www.lifebook.co.kr     |
| 베델서적  | 949-854-9191 | bethelbook@hotmail.com |

추천도서



폴 워셔 저, 생명의말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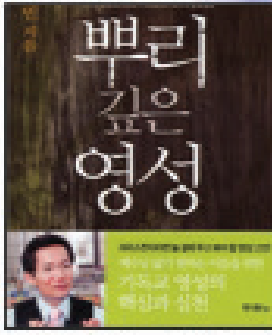
마틴 로이드존스 저, 자평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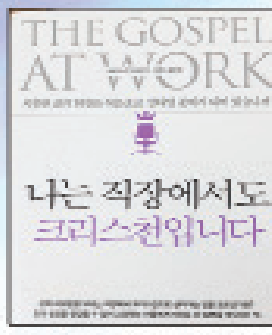
켄 가이어 저, 디모데



박영선·김관성 저, 두란노



강준민 저, 두란노



앤서니 토키·그레그트 생명의말